

碩士學位論文

濟州道 辛丑年 民亂이 濟州道
教會形成에 미친 影響

牧園大學校 神學大學院

神學科 歷史神學 專攻

金 國 煥

1993年 12月

濟州道 辛丑年 民亂이 濟州道
教會形成에 미친 影響

指導教授 鄭 基 煥

이 論文을 神學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3年 12月 日

牧園大學校 神學大學院

神學科 歷史神學 專攻

金 國 煥

金國煥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主 審： _____ (印)

副 審： _____ (印)

副 審： _____ (印)

1993年 月 日

牧園大學校神學大學院

감 사 의 글

하루 하루의 삶을 지켜주시고 올바른 목자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논문이 있기까지 부족한 글을 다듬어 주시고 사랑으로 지도해 주신 정기환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글을 심사해 주신 이상호 교수님, 김익원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뒷바라지해 주신 아버님과 어머니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말 없이 기도하며 용기와 힘을 주었던 선미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993년 12월

김 국 환

목 차

I. 서 론	1
1. 본 연구의 목적	1
2. 제주도 辛丑年 民亂의 연구사	1
A. 박광성	2
B. 김옥희	2
C. 정진각	2
3. 본 연구의 범위	3
4. 본 연구의 방법	3
5. 민란 당시의 제주도의 地方官制 및 租稅收取構造	4
II. 濟州道 天主教의 流入	6
1. 제주도 천주교 유입 직전의 國內政勢	6
2. 제주도 천주교 유입 직전의 제주도 狀況	7
A. 강제검의 난	8
B. 김지의 난	8
C. 송계홍의 난	9
D. 방성철의 난	9
3. 제주도 천주교 수용과 전교	10
III. 제주도 신축년 민란의 原因	16
1. 政治的인 原因	16
2. 經濟的인 原因	20
3. 社會·文化的인 原因	24
IV. 제주도 신축년 민란의 經過	27

1. 민란의 發端	27
2. 민란의 經過	30
3. 민란의 事後 處理	34
V. 제주도 신축년 민란이 제주도 教會形成에 미친 影響	36
1. 韓末 천주교의 性格	36
2. 제주도 천주교와 그 敎弊	40
3. 教會形成에 미친 影響	44
VI. 결 론	51
參 考 文 獻	53
ABSTRACT	56

1. 서 론

1. 본 연구의 目的

본 논문은 濟州道の 辛丑年 民亂을 김윤식의 續陰晴史, 皇城新聞의 보도내용, 천주교신부들의 서간문과 보고내용의 비교분석을 통해 제주도 선교와 교회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여러 각도에서 살펴봄으로서 바람직한 제주선교의 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제주도 신축년 민란의 연구사

1901년에 일어난 제주도 신축년 민란은 구한말 발생한 民謠 중 甲午農民 전쟁 다음으로 많은 犧牲者를 낸 큰 민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라는 지역적인 문제로 활발한 연구는 이루어 지지않았다. 다만 몇몇 향토 사학자와 천주교축의 학자들에 의해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제주도 신축년 민란을 보는 지금까지의 視覺은 민란의 原因을 규명하면서 크게 두 가지의 흐름이 있어 왔다. 당시 민란을 통하여 많은 천주교도들의 희생이 있었는데, 이 천주교도들의 희생을 강조하여 敎亂으로 보는 견해¹⁾와 다른 하나는 당시 지방관의 虐政과 경래 봉세관의 作弊 그리고 천주교도들의 敎弊에 대항하여 제주도민이 等所한 敎案으로 보는 견해다.²⁾

제주도 신축년 민란은 다음과 같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연구되어 왔다.

-
- 1)대표적인 사람은 김옥희와 유홍렬이다.
 - 2)김태능과 혼순만이 대표적이다.

A. 박광성

박광성은 1968년 인천교대 논문집에서 '1901년 제주도 민란의 原因에 대하여'란 제목으로 천주교와는 상관 없이 일부 특정교도의 作弊로 야기된 것으로 민란적 성격면에서는 조선조 말기의 다른 민란과 궤를 같이하고 있으며, 정책적인 천주교 탄압에 의한 다른 敎案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B. 김유희

그는 1980년 부산교대 논문집에서 민란의 원인을 제주도내의 土着세력과 새로이 성장한 천주교세력 및 경래 봉세관과의 利害關係를 糾明하면서 토착세력들이 일본 상인들과 諸侯하고 난을 사주 선동한 것이며, 이 민란은 한국사에 있어서 그 후진성을 근대 세계 앞에 여지 없이 폭로한 수치스러운 사건이라고 규정한 견해로 사료취급에 있어서 불탄서 신부의 서간문과 보고서내용을 김윤식의 續陰晴史나 황성신문의 보도내용과 차별성을 두고 신부들의 보고서와 서간문을 더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C. 정진각

정진각은 한양대학교 한국학 논문집에서 이 민란을 제주도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채 무책임한 행동을 자행한 봉세관과 제주도의 전통을 무시한 전교정책의 副作用과 봉세관과 결탁한 사이비교도들에게서 민란이 기인되었으며, 민란을 통해 다수의 교인이 희생되었으므로 교난이라는 면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그 보다는 제주도민의 團合과 外勢에 대한 단호한 抗拒로서 제주도민의 자주적 역량을 보여준 민란이라는 데서 그 의의를 찾고 있다.

위와 같은 연구는 제주도 신축년 민란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기여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첫째, 민란을 다루는 시각의 문제로 단순히 천주교 박해사건이나, 제주도민의 영웅적인 의거인 민란으로 서술하고 있어 당시의 국내외적 政勢를 무시한 채 또 제주도민의 주체적인 역할을 무시한 서술이다.

둘째, 자료 취급상의 문제로 지금까지 주로 인용된 자료는 천주교측의 입장만 강조한 자료와 지방관의 보고에 의한 황성신문의 보도와 官報, 김윤식의 속음청사 등이나 이들 자료는 기록자에 따라 달리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각각 사실에 대한 상호분석이나 자료비판이 필요하다.

셋째, 내용상의 문제로 특정자료를 편향되게 해석하거나 잘못 이해한 나머지 분석내용의 불일치를 보인다는 점이다.

3. 본 연구의 범위

제주도 신축년 민란은 1901년 1월에 정의교당에서 마을 유지인 訓長현유석을 교당에 끌고가 私形을 가하고, 2월에는 정의에서 敎人과 分爭하던 한 노인이 교당에 끌려가 학살되는 사건을 계기로 민란이 일어나게 되므로 시간적으로는 1901년을 전후해서 제주도내의 정세를 통하여 제주도에서 신축년에 민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음을 김윤식의 續陰晴史와 皇城新聞의 보도내용을 기본사료로 하여 봉세관과 천주교도들의 作弊를 살펴봄으로서 민란이 제주도 敎會形成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이 논문의 연구범위로 정한다.

4. 본 연구의 방법

본 논문은 시대적으로 1901년 4월초 제주도에서 일어난 民謠, 일명 '이재수의 난'을 다룸에 있어, 김윤식의 속음청사, 당시 제주목사의 보고내용인 황성신문의 보도내용, 천주교신부들의 서간문과 파리외방전교회에 보내는 보고서를 기본 사료로 하여 濟州道 辛丑年 민란에 관한 기록을 발췌, 비교분석을 통하여 민란의 원인과 전개과정, 도민의 반응을 알아봄으로서 후일 개신교의 제주선교와 교회형성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가를 기본 사료에 충실하면서 기존 연구자들의 제주도 신축년 민란을 보는 시각을 비교하면서 보다 객관적으로 민란을 파악하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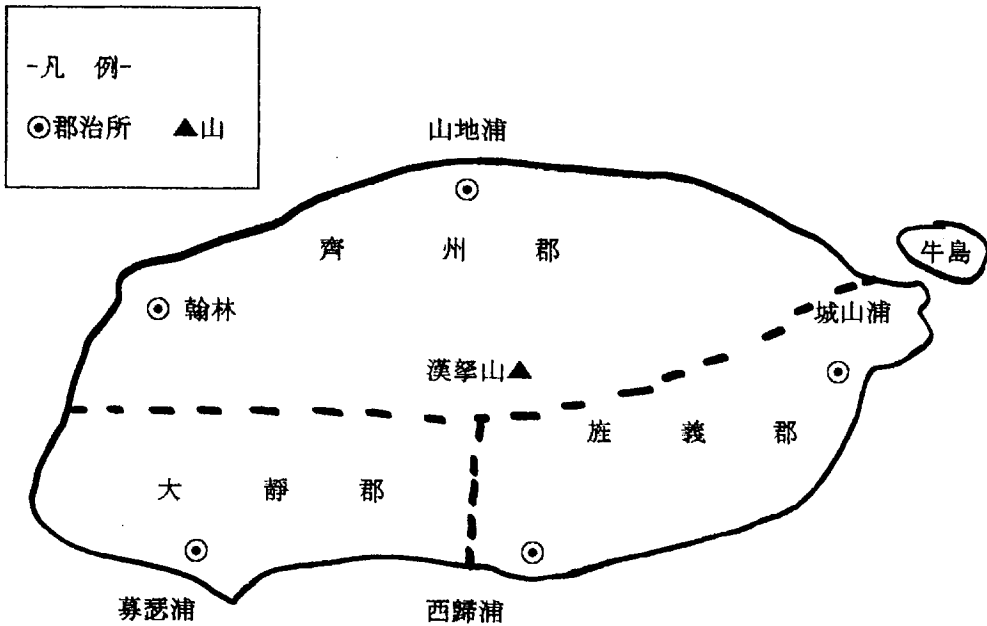
5. 민란 당시 제주도의 地方官制와 租稅收取構造

신축년 민란 당시의 제주도의 地方官制는 광해군 이후 450여년 동안 내려오던 3읍제도, 즉 濟州牧 아래 濟州郡, 靜義郡, 大旌郡의 3邑制度가 고종 31년(1894년)에 와서 김홍집 내각이 성립되어 이른바 甲午更張이라는 우리나라 역사상 일찌기 없었던 대담한 行政改革을 단행하게 됨으로서 그 영향은 자연히 제주도에도 크게 미치게 되었다. 고종 32년(1895년)에 공포된 지방제도 개정에 관한 훈령은 종래의 牧, 府, 郡, 縣을 모두 廢止하고 전국을 23개 행정구역으로 나누어 재편하였는데 이 23개 府 가운데 하나가 濟州府 였다. 1896년 다시 전국은 13개 도로 개정하여 제주는 전라남도에 포함시켰으나 제주도만은 갑오개혁 이전에 존속했던 牧을 그대로 두게하여 1牧 3郡의 지방관제는 신축년 민란 당시에 갑오개혁 이전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한편 신축년 민란 당시의 租稅收取構造는 근대적 개혁이라는 명목하에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에 편입시키면서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元定, 結

戶兩稅 외에 戶主稅, 文檢稅, 漁場稅, 市場稅 등의 각종 雜稅를 부과하였다. 특히 광무개혁으로 왕실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새로이 내장원이 설치되고 이 내장원에서 도서벽지의 조세를 관리하게 됨으로서 제주도에도 내장원에서 파견된 봉세관이 세원조사와 세금납부를 독촉해 왔다. 이로 인해 기존의 조세수취구조가 중앙 ⇒ 지방관 ⇒ 농민의 구조에서 중앙 ⇒ 봉세관 ⇒ 농민의 구조로 변하게 되었다. 이 수취구조의 변화는 후일 민란을 통해 지방 토호세력과 봉세관과의 갈등을 낳게 한다.

辛丑年 民亂 당시 濟州道 略圖(一牧三郡)



II. 濟州道 天主教의 流入

1. 濟州道 天主教 流入 직전의 國內政勢

제주도에 처음으로 천주교가 流入된 사실과 그 經緯에 대한 精確한 記錄은 거의 없으나 대개 1899년에 宣敎師들이 제주도에 入道하여 傳敎한 기사가 나타나 있다. 그러나 Mutel주교의 報告書에 의하면 드물게 이 섬에 몇몇의 신자들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³⁾

1876년 일본과 丙子修好條約을 맺은 후 계속해서 서구 각국들과 通商條約을 맺게 되었는데, 1882년에 韓美通商條約이, 1883년에 韓英, 1884년에 이탈리아, 러시아와 조약을 맺고, 프랑스와는 그 2년 후인 1886년에 조약을 체결하였다.⁴⁾

이와 같이 세계 列強과 外交關係가 시작될 무렵에 1882년 壬午軍亂이 일어나면서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暴君과 虐政에 시달리던 백성들이 반항의 깃발을 들고 민란을 일으키는 등 국내는 매우 소란스러웠다.

한편 당시의 교회 사정은 政治的, 經濟的 政勢로 볼 때, 날로 호전되어 1881년 5월에 舍敎로 낙인찍혀서 정죄한 '斥邪운음'은 무의미한 공문사가 되었고, 1871년에 대원군이 전국에 세웠던 斥和碑는 1882년 韓美通商條約을 계기로 없애버리게 되었다.⁵⁾ 이 시기는 大阮君이 밀려나가고 민비 일파가 나라를 좌우하는가 하면, 김옥균, 박영효를 중심으로 開化派가 1884년 甲申政變을 일으키는 등, 자못 복잡한 가운데 천주교 전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⁶⁾

3) 김옥희, 제주도 신축년 교난사, (제주: 태화출판사, 1980), 22쪽.

4) 이호운, 한국초기교회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0), 36쪽.

5) 이호운, 앞 책, 36-41쪽.

6) 이호운, 앞 책, 41쪽.

그리고 이 기간에 신부들이 逮捕되면 과거와는 다르게 대하여 고작 만주로 돌려 보내고 때로는 못본척 하거나, 오히려 체포한 관리를 나무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리하여 한국 천주교의 신부들은 자신의 존재를 묵인 받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7)

2. 제주도 천주교 유입직전의 제주도 狀況

제주도는 19世紀末 이래 반 世紀에 걸쳐 전도민적인 民衆蜂起만 하더라도 다섯 차례의 民亂이 일어났던 지역이다. 때문에 中央官吏들이 赴任하기를 꺼려하는 지역이었다.

이 배경의 원인에 대하여는 연구자들에 의해 여러가지로 설명되어지나 김옥희는 '外部社會와 孤立된 生活條件으로 保守的이고, 排他的이고, 冒險的인 성격' 8) 으로 설명한다.

조선시대 말기에는 勢道政治로 인해 중앙에는 국가기강이 紊亂하여졌고, 지방에서는 擄取와 橫領이 자행되는 등 관리들의 橫暴가 심하였음으로 민생고에 시달린 도민들이 1882년에 큰 亂을 일으켰다. 이 난을 姜梯儉의 난이라하는데, 이 난을 시작으로 제주에서는 1890년 金志의 난, 1896년 姜瑜爽과 宋啓弘의 난, 1898년 房星七의 난 등 크고 작은 난들이 일어났다. 9) 한말에 일어난 대표적인 亂은 다음과 같다.

7) 유홍렬, 고종치하의 서학수난의 연구, 한국문화총서 제20집, (서울: 을유문화사, 1963), 361쪽.

8) 김옥희, 앞 책, 71쪽.

9) 제주도문화공보담당관실, 제주도지, 1982, 338쪽.

A. 강제검의 난

1882년 강제검이 중심이 되어 通文을 돌리고 주로 농민의 지지를 받아 일어난 강제검의 난은 평소에 作弊가 심했던 아전 세 사람을 처형하고 관인과 공문서를 불태우고, 제주목사 任憲大를 聲討하여 내쫓았다.¹⁰⁾

이 민란은 農民이 중심이 되어 일어난 反封建的 운동으로 민란의 原因을 제주도 郷土史學者인 홍순만은 첫재, 負役의 불공평과 둘째, 場稅, 火田稅의 과다징수와 세재, 환곡의 作弊와 네재, 監索에 대한 불만과 다섯재, 箭竹供出에 대한 반발을 들고 있다.¹¹⁾ 또한 이 민란은 그 해 5월 진주에서 일어나서 삼남지방으로 확산되었던 것에 자극을 받고 일어났던 것으로 보고있다.

B. 김지의 난

1890년(고종27년)에 하귀리 사람 김지는 牧使 조균하가 탐관하고 민생을 돌보지 않는 것에 분노하여 백성들을 선동하여 濟州牧 官衙를 점거하고 민원대상의 관원들을 追放하였다. 이 때 조균하 목사는 이방 김경옥을 시켜서 김지에게 뇌물을 줌으로 해서 김지는 스스로 민중을 해산시키니 이에 민중은 분개하였다. 제주도 향토사학자 홍순만은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한다.

“그들은 제주성을 점거하고 관아를 파괴하는 한편 민원 대상이 되었던 관리들을 추방하였다. 그러나 이 민란은 큰 결과를 얻지 못하고 10여일 동안 계속되다가 열기가 수그러들고 일단 진정되었는데, 그 이유로는 난을 지휘하던 김지 자신이 관리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난의 확대를 일부러 막았다는 설이 있으며, 또 이런 사실을 민중들이 알고 실망하여 더이상 기대를 걸지 못하고 스스로 해산해 버린 사실 때문이었다.

10) 제주도문화공보담당관실, 앞 책, 338-339쪽.

11) 제주도문화공보담당관실, 앞 책, 338쪽.

이 사건 때문에 목사 조곤하는 파직되었으며 후임으로 이규원을 임명하여 民心을 收拾토록 했으나 이 민란을 전후한 도민의 動搖는 좀처럼 가라 앉지 않고 오래 지속되었다.”¹²⁾

C. 송계홍의 난

이 민란은 甲午更張의 신체제에 반발한 事件이었다. 1894년 갑오년의 東學亂이 일어나고 淸日戰爭이 일본의 승리로 끝이 나자 우리나라에서는 김홍집의 친일 내각이 성립되어 同年 12월 흥범14조의 서정개혁령이 공포되었다. 이는 조선의 封建社會의 組織과 制度가 近代國家 체제로 바뀌려는 것이었다.¹³⁾ 그러나 이것은 自力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본의 壓力과 그들의 利權이 개입되어 행해진 것이므로 국민들의 抵抗이 심하였다.

제주도에서도 1896년에 송계홍, 강유석이 주동이 되어 난을 일으켰는데 이 난은 여느 난과는 다른 性格을 가지고 있었다.¹⁴⁾ 동년 3월에 이연보가 단발령의 부당함을 민중들 앞에서 말하다가 잡혀갔다. 이에 강유석 등이 이연보의 석방을 호소하려 갔는데 도리어 巡檢에게 협박을 당하고 옥을 보았다. 이를 보고 격분한 幼生 송계홍과 민중은 ‘倭洋逐斥·단발령 반대’ 등을 외치며 경무청에 난입하여 집기를 부수고 공문서를 불태웠다. 또한 이들은 전일에 민란을 주도하였다가 관에서 뇌물을 받고 야합한 김지도 성토하고 그를 잡아다가 죽였다. 이 때 찰리사 오경림은 사태를 수습하지 못하고 전목사 김윤병과 대정군수 채구석이 창의군을 일으켜 사건을 수습하였다.

D. 방성철의 난

12) 뿌리깊은 나무, 한국의 발견, (서울: 브레테니카, 1983), 73쪽.

13) 김봉옥, 제주통사, (제주: 경신인쇄소, 1987), 184쪽.

14) 김봉옥, 앞 책, 184쪽.

방성철은 본래 전라남도 同福郡 사람이다. 그는 南學敎人으로 담력이 있고 술수에 능한 사람으로 알려졌다. 고종 31년(1894년)에 제주도에 들어와서 화전민들과 살면서 남학교를 포교하였다. 광무 2년(1898년) 당시 이병휘 목사가 탐욕하여 백성의 원성을 사자 방성철은 민의를糾습하여 일어났던 것이다. 15) 박용후는 그의 저서 제주도지에서 이 난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성철은 전남 동북군 사람인데 본도에 들어와 房杜의 비결을 가지고 반역의 뜻을 품어 민심을 선동하여 오다가 濫稅를 고치겠다고 하여 민증을 규합하고, 자기 심복 부하 중에 힘이 센사람을 택하여 禦南軍이라 稱하고 제주성에 침입하여 군기를 奪取하고 목사를 逐出하고 인부를 탈취하였다. 성철은 제주를 일본에 부속시키려고 일본 어선을 타고 출항하여 채 중앙에 달하기 전에 강풍이 일어 어쩔 수 없이 되돌아오게 되었다. 이 때 전 현감 홍재진, 송두옥 등이 倡義所를 설하고 성중의 장정을 동원하여 성철과 난의 주동자를 잡아 죽였다. 목사 이병휘는 성을 지키지 못한 탓으로 罷免되었고 3월에 목사 박원용이 察吏使를 겸하고 와서 무마하였다.” 16)

이처럼 계속되어지는 민란으로 제주도는 혼란한 상태였고, 특히 이 방성철의 난의 여파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辛丑年 민란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3. 제주도의 천주교 受容과 傳敎

제주도에서의 본격적인 천주교의 傳敎는 다른 지역 보다 매우 늦어 1899년 5월에 프랑스 宣敎師 M. Peyent신부와 조선인 金元永신부가 입도하면서 시작되었

15) 제주도문화공보담당관실, 앞 책, 341쪽.

16) 박용후, 제주도지, (서울: 백영사, 1976), 96쪽.

다. 17) 그러나 제주도에서의 천주교 수용도 육지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외부로부터 전래된 것이 아니라 본도인 스스로가 신앙을 받아들이므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18) 제주도에 천주교가 유입된 시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몇 가지의 기록으로 보아 프랑스 신부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도민들은 천주교를 접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김석익의 '增補耽羅誌'의 부기문 전설조(附奇聞 傳說條)에 나오는 것으로서 제주도 사람으로서 처음 천주교와 접촉한 사람은 金福壽라는 사람이다. 그는 壬辰倭亂 때에 풍파를 만나 安南國에 표착하여 그곳에서 만나 일본 사람을 따라 일본 오사카로 가서 한 유럽 사람을 만나고, 그들이 그리스도교를 믿는 것과 교리책과 기도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본 후에 제주도로 다행히 돌아올 수 있었다. 19) 다음으로 천주교 교인이었던 黃嗣永의 부인 丁蘭珠에 관해 전해지는 이야기와 그녀의 무덤이 아직도 제주도 모슬포에 남아 있다는 사실로도 이미 도민들은 천주교를 접하고 있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20) 뿐만 아니라 CH. Dallet의 교회사 속에서도 알 수 있다. 즉 1858년 8월 5일자 장주교의 파리의 방전교회에 보낸 서간의 기록을 간추려 보면, 펠릭스 베드로(Felix Pierre)라는 제주도민이 탄 배 한척이 1856년 풍낭을 만나 중국의 광둥해역으로 漂流하여 그 배 속의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영국 배 한 척이 나타나 그들 중 1명을 구하여 홍콩으로 데려 갔다. 거기서 그 사람은 조선유학생 하나를 만나게 되었다. 이 신학생은 폐농신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요양하기 위하여 홍콩에 와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 漂流人은 그 신학생의 인도로

17) 최선흥, 제주도의 학살사건과 본당연혁, 카톨릭연구 1933년 9, 10합병호, 176쪽.

18) 유흥렬, 앞 책, 371쪽.

19) 유흥렬, 한국천주교회사, (서울: 카톨릭출판사, 1962), 935쪽.

20) 김옥희, 앞 책, 24쪽.

그곳 루세이유(Rouseille)신부의 지도하에 있으면서 신학생 자신이 교리를 가르쳐서 세례를 주게 되었던 것이었다. 이 펠릭스 베드루는 마침 1858년에 조선에 귀국하여 폐롱 권신부와 연락하는 방법을 알아 가지고 제주도로 돌아가서 제주도의 도민 20명과 그의 가족 40여 명을 改宗시켰다는 기록이 있다.²¹⁾

이상의 기록으로 보아 철종 때에 육지에서 천주교가 성행되었을 때에 제주도에 도 열심있는 교인으로 인해 복음이 전파되었으나 丙寅迫害로 인해 지하로 숨어들거나 전교가 중단 된 것으로 보인다.²²⁾

제주도에서의 본격적인 전교는 전술한바와 같이 1899년으로 보고있다. 즉, 1898년경에 제주도 중문면에 살고 있는 앙베드루라는 사람이 육지에서 영세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와 전교 함으로서 선교사를 맞이한 장본인이기도 하다.²³⁾ 이에 대해 최선홍 신부는 카톨릭 연구지에 다음과 같이 전한다.

“도민은 일반으로 순박하여 恭儉하여 郊社의례로 자기정신과 양심을 지배하더니 고려 충렬왕 2년에 불교와 잡신교가 침입하여 도민성을 침탄케 하였고, 이조 文治의 化가 선정됨에 따라 유교가 대흥하였다가 그 말년에 倫理가 紊亂하던 차 광무 3년 강생 1899년에 이 남쪽나라 외로운 섬에도 들들런 겨울 바람이 끝을 맺고 본도 중문면 색달리에 거주하는 앙베드루가 육지에 머물 때 영세입교하여 열심 수계하다가 고향에 돌아와 ‘신아오스딩, 신바오로’ 형제와 대정면 보성리에 사는 김생원과 강도비아에게 전교하여 네 가정이 열심 수계하나 목사 없음을 항상 유감으로 생각하던 중 민주교 각하께서 가오로 배신부와, 아오스딩 강신부를 제주 본당 신부로 임명하였다.”²⁴⁾ 그러나 타락한 습관과 주민들의 곤란한 특성 때문

21) 김옥희, 앞 책, 24-25쪽.

22) 김옥희, 앞 책, 26쪽.

23) 유희철, 고종치하의 서학수난의 연구, 374쪽.

24) 최선홍, 앞 책, 177-178쪽.

에, 그리고 대단한 巫俗과 迷信에 젖어 있어서 일년이 지난 1900년에도 겨우 19명의 영세자를 가질 수 있을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그 후 1년 사이에 改宗자는 급속히 증가하여, 민란이 일어나기 직전인 1901년 봄에는 90여명이 개종하였다. 25)

제주도에 선교사로 처음 내도한 배신부는 自然環境에 적응하지 못해서 돌아가고, 그 대신 L. Marcel Lacrouts(구마술)신부가 赴任하였고, 개종자가 늘어남에 따라 1901년 5월 J. G. Mousset신부가 增派되었다. 26)

당시의 입교자에 대해서 김윤식은 續陰晴史에서 입교자들은 作弊者가 불과 몇 사람에게 지나지 않고 대부분 貪官汚吏에 못이겨 입교한 자들이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27)

이것은 곧 순수한 종교적 動機외에 정치적 特權의 보호 및 특유의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동기가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 하겠다. 28)

또 다른 견해로는 다음과 같은 김태능의 글에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도민들의 마음 속에는 언제나 지배자와 권력층에 원망과 반항심이 장구한 기간을 두고 누적되어 왔다. 그런데 宿命的인 貧困과 不平이 쌓여 있는 이 시기에 프랑스 신부에 의해 제주도에 천주교가 전교되기 시작했다. 교회에서는 이들 불우한 입교자들에 대하여 貧富貴賤을 差別하지 않고 平等한 입장에서 모두 교우로 대우해 주었으므로 그들은 천주교의 이러한 정신에 감격하였고 또 封建的인 抑壓과 因習에서 解放되고 救援되고 있음을 기뻐하며 入教를 원하는 도민들도 많았다고 한다. 29)

25) 제주도사연구회, 제주도사연구 창간호, (제주:경신인쇄사, 1991), 94쪽.

26) 유흥렬, 앞 책, 375-376쪽.

27) 김윤식, 속음청사, 광무 5년 6월 3일.

今番教人者大略五六百名, 而有名作弊者, 不過幾人, 基餘皆人於虐政, 或偶然投入.

28) 제주도사연구회, 앞 책, 94-95쪽.

이러한 상태에서 제주목사의 貪虐으로 인해 그 피해자들이 교회로 몰려들고, 1900년부터 왕실의 재정을 메꾸기 위해 파견된 봉세관의 作弊로 도민들의 원성을 사고있었다. 30) 그러므로 이 시기에 천주교에 입교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원인은 무엇보다도 稅弊에서 오는 민생고에서부터 탈출고를 찾으려는 도민의 심리적인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천주교의 갑작스런 성장요인을 다른 시각에서 보는 이들도 있다.

“1901년경 제주도에서의 천주교의 세력은 관권 위에 있었고, 프랑스 신부는 목사의 상투 위에 앉아 있었다. 이들은 치외법권이 있음을 기화로 목사가 집무하는 방에 구두를 신은채 들어가는 등 법도에 어긋나는 일을 자주했으며 이 어긋난 행위를 관권이 잡을 수 없음을 알자 사이비 교도들이 갖은 橫暴를 다했던 것이다. 似而非 교도가 鹽田에 나가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고 소금가마니 하나를 짊어지고 나온다 하여도 주인은 아무말도 하지 못했다. 당시 중앙에서는 왕실의 재정이 窮乏하여 팔도 각지에 鳳稅官을 보내어 각종세금을 징수하였다. 1900년에 제주도에 파견된 봉세관은 강봉헌이란 자였는데 이자 역시 탐욕하고 橫暴가 심했기로 사이비교도들은 이 강봉헌에게 붙어 계멋대로 私稅를 만들어 백성의 곡물을 후려다가 사육을 채우는 일을 병행했던 것이다.

이들은 성당에 형틀을 차려놓고 그들의 가렴주구에 응하지 않으면 잡아다가 私刑을 가하였다. 또 온갖 악행을 다하고 성당에만 숨으면 관리가 그 속까지 찾을 수 없는 노름담 사원이기도 했다. 도둑질을 하고 성당에 숨으면 면죄가 되었다. 31)

이와 같이 천주교를 빙자한 사이비 교도들의 敎弊와 봉세관의 稅弊의 횡포가

29) 김태능, 제주신문 1962년 6월 10일.

30) 유흥렬, 앞 책, 376-377쪽.

31) 강용삼 외, 대하실록 제주30년사, (서울:태평출판사, 1984) 116-117.

어떠 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 또 다른 교세확장의 원인은 당시 제주에는 중앙에서 流配은 유배인들이 천주교에 많이 입교했던 것을 빼놓을 수 없다. 32)

당시의 제주도 총인구는 약4만명으로 천주교인이 상당 수가 있었으며 제주읍과 한눈에 성당이 있었고, 각 촌에는 公所가 설치되어 천주교의 교세는 날로 발전하고 있는 상태이다. 33)

32) 김육희, 앞 책, 32쪽.

33) 유흥열, 앞 책, 376쪽.

Ⅲ. 제주도 신축년 민란의 原因

1. 政治的인 原因

19세기 末 여러 歐美列強帝國들이 弱小國인 우리나라에 不平等條約을 강요하면서 각종 利權을 빼앗아 가는 가운데, 가장 늦게 진출한 프랑스는 천주교 布敎를 내세우면서 선교사를 보호한다는 구실아래 불평등조약을 강요하였다. 프랑스와締結한 韓佛修好通商條約은 稅關 治外法權, 領事裁判制度 등에 의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그러나 다른 나라와는 달리 프랑스는 이 조약에 '敎會의 보호'라는 새로운 내용을 첨가 시켰다.

한말의 천주교는 이러한 狀況에서 治外법권의 主體를 확대 해석 하며 조선인 천주교인에게도 법적구속으로부터의 免責을 劃策하였다. 이는 조선 정부가 선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더 나아가 그 보호의 責任까지 져야하는 것으로 확대해석 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이러한 상황은 종교에 의한 衝突이 일어났을 경우 교회측에서 임의로 재판하는가 하면, 私刑을 가하기도 하고, 실정법 위반으로 관에 끌려간 천주교인을 마음대로 풀어주기도 하였고, 천주교가 외세에 依存하여 作弊하고, 官에서는 이를 금할 수 없어 한탄하고 있다고³⁴⁾ 김윤식은 續陰晴史에서 서술하고 있다. 천주교인들의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프랑스 신부는 傍觀 내지는 비호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治外법권을 濫用하여 관사에까지 간섭함에 따라 이는 점차로 주권에 대한 위협이라는 측면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³⁵⁾ 이렇듯 천주교가

34) 김윤식, 앞 책, 광무 5년 4월 12일.

自己亥(1899년)春, 西敎士傳入, 設敎當於州城及旌義亭, 逋亡無賴卒, 皆投之, 至是, 基徒偏滿一島, 狹黨乘勢 橫行恣暴, 終을기일, 官不態禁.

정치적 특권세력으로 등장하게되자 정치적 특권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점차로 교회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에 제주도 사회가 천주교인들에 의한 無法天地로 전락함에 따라 지방관은 統治不能의 상태에 빠졌고 일반 도민들은 천주교인들의 전횡으로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정도였다. 교인들의 독주는 기본적으로 치외법권적인 프랑스 신부의 존재와 제주도의 경제적 전권을 장악한 鳳稅官과의 結託이라는 조건 속에서 더욱 가속화된 양태로 전개되어 교인들은 신부와 봉세관이라는 두개의 절대권력을 바탕으로 경제적 특권을 香油하는 새로운 收奪者, 侵略者로서 존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민의 반천주교의식은 더욱 자극받게 되었다.

또한 봉세관도 지방관을 비롯한 도민 上下層 모두에게 적으로 선정됨에 따라 자신의 身邊確保와 업무수행을 위해 도민들로부터 排他的임으로써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流配罪人³⁵⁾ 및 교인과 결탁할 수 밖에 없었고 그 반대급부로서 舍音權, 租稅徵收權, 都買權과 같은 經濟的 利權을 교인들에게 주는 相互補完的 관계에 있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1901년에 들어와서는 더욱 橫橫하여 1월에는 旌義教堂이 마을 유지인 訓長 현유석을 제멋대로 逮捕하여 私形을 가하는가 하면, 2월9일에는 정의에서 吳信洛이 敎人과 分爭이 있었던 吳씨 姓을 가진 노인이 그의 아들과 함께 교당에 끌려가 私形을 당하고 오신락이 할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므로 정의 군수가 범인을 잡고자 하였으나 교당에 은신하여 잡을 수가 없었다고 황성신문은 보고하고 있다.³⁷⁾

35) 황성신문, 광무 5년 6월 21일.

김윤식, 앞 책, 광무 5년 5월 5일, 8일.

36) 박광성, 1901년 제주도 민란의 원인에 대하여 인천교대 논문집 제2집, 1968.

오씨 노인의 죽음에 관하여는 그 진실여부가 확실치는 않으나 그가 金元永 신 부에 의해 끌려가 매를 맞은 것은 확실하니³⁸⁾ 이것은 도민에게 刺戟을 주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다. 이리하여 도민들은 나름대로 통문을 돌려 교회와 담판하려고 하였고, 교도들도 이에 對抗할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³⁹⁾

동년 3월 5일에는 천주교 신도회장 박고마스가 退任하는 전목사 이상규에게 錢材를 勒奪당하였다 하여 신 목사가 금함에도 불구하고 교인 10여명을 引率하여 행패를 부렸다. 3월 18일에는 선교사 구마술이 구속되어있는 '유배죄인 중에 이범수는 천주교인이기 때문에 해방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强청하여 제주 목사가 이를 불허함에도 불구하고, 獄門을 破壞하여 석방시켰다.⁴⁰⁾ 동년 5월에 이르러서는 대정군수 蔡龜錫과 군민들이 함께 設立한 商務社와 천주교도 사이에 衝突事件이 벌어졌는데 이는 천주교도인 副吏房 김옥돌이 鄉長 오대현의 姦妾과 姦淫事件으로 판에 고발되자 副吏房을 "奸人妻妾之罪"로 苔 30에 處한 후 가두었고, 또 교인들의 어떠한 항의가 있을까 두려워 오대현도 苔 15를 處한 후 석방하였다. 이에 불만을 품은 教徒인 김진사가 그의 무리 50여명을 이끌고 郡守에게 와서 교도를 때리고 가둔 연유를 問議聲討하고 자의로 獄門을 열고 副吏房을 석방시킨 후 商會民을 잡아가지, 상회민 역시 무리를 끌고 길에서 잡혀간 상회민을 구출하고 교도를 구타한 후 두 사람을 빈사 지경에 이르게 만들었다.⁴¹⁾

37) 황성신문, 광무 5년 2월 30일.

旌義郡去 吳信洛이 教人과 相갈ᄃ다가 吳昌憲이 信洛의 二子를 教當에 捉囚嚴刑ᄃ고 信洛은 馬尾에 縣頭ᄃ고 十餘里를 馳去ᄃ야 仍以他殺ᄃ지라 該郡守가 正犯을 捉得ᄃ고져ᄃᄃ 卽 教當에 隱身ᄃ야 不得捕縛이라.

38) 구마술신부서간 N015(김옥희, 앞 책 부록).

39) 김윤식, 앞 책, 광무 5년 5월 7일.

40) 김윤식, 앞 책, 광무 5년 3월 18일.

41) 김윤식, 앞 책, 광무 5년 5월 8일.

이처럼 비밀비계 했던 천주교도의 정치적 불법행위는 민란의 발발후 이를 진압, 수습하기 위해 파견되었던 察理使 황기연의 보고서 중에서 찾아볼 수 있다. 42)

1) 살인은 하였으며 관에서 잡아서 검사하지 못하게 하고

2) 남의 아내를 빼앗고 소문을 내지 못하게 하고

3) 평민을 체포하여 결박, 구타하고

4) 스스로 관에 잡힌 죄인을 교인이라 하고 도중에 빼앗고

5) 혹 교인이 범죄자로 관에 체포되면 도당을 끌고가서 교인은 범국인이라 하여 풀어주고

6) 평민이 교인을 힐난하면 교회를 비방한다고 신부에게 고하여 교당 끌고와서 형을 가하고

7) 교당에 평민을 가두는가 하면 형구를 설치하여 형을 가하는 일 이와 같이 主權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치외법권 및 영사재판권의 확대해석 내지는 惡用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즉, '천주교도는 곧 法國人이기에 조선국 관할이 아니다'라는 치외법권의 확대해석 속에 또한 '때문에 교안을 교당에서 신부가 裁判할 수 있고 私刑을 내릴 수 있다'는 영사재판권의 악용에서 자행된 것이었다. 여기에서 郡·民을 가리지 않고 반천주교의식이 싹트기 시작하였고,

42) 황성신문, 광무 5년 6월21일.

1) 擅殺人命하되 官不得拿獲檢屍事

2) 私奪人之婦女하되 民不得開口事

3) 平民을 尊令捉致하야 結縛毆打事

4) 自官捉去之罪人을 稱以教人하고 中路奪去事

5) 教人之犯罪者를 官或捉囚稱以教人是法國人하고 率堂囚以去事

6) 殺人與平民이 若有謫言즉執言於教師하야 謂之毀教하고 率徒捉去用刑事

7) 設刑具鞭笞及拘留問하야 捉致平民하야 用刑牢囚事

드디어 현직 대정군수인 채구석의 주도하에 반천주교 自衛組織인 大靜商務會社가 만들어 졌던 것이다.

2. 經濟的인 원인

바람 많고 돌이 많다는 제주도! 이는 그 많큼 제주도가 척박한 땅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다. 제주도는 화산도로 지형을 볼 때 한라산을 중심으로 반사형으로 '내려오면서 초지가 넓게 분포되어 있어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이 아주 적었다. 구한말 삼남지역의 耕地利用率이 慶尙北道가 14.88%, 慶尙南道가 16.84%, 全羅北道가 17.92%, 全羅南道가 22.57%인데 비해 濟州道는 겨우 8.8%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相對的으로 인구는 많아 전국 평균 耕地 면적이 戶當 1.04결일 때, 제주도의 경우는 호당 0.69결로 전국평균의 절반 밖에 되지않았다. 43)

또한 제주도의 대부분의 경지가 목장토 등의 公土로 되어 있었고 민유지는 극히 적었다. 때문에 제주도의 도민들은 국가에서 땅을 빌어 농사를 짓고 그 지대를 국가에 支拂하였다. 즉 국가가 地主가 되고 농민은 국가에 대한 小作人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의 경계는 '國家地主的'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제주도는 육지에서 처럼 대지주가 아니라 중소 지주 밖에 없었고 소수의 중소지주를 제외하면 대부분 半農層으로 水産業, 牧畜業, 기타 手工業 등의 생산활동을 겸하며 생계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제주도의 국가지주적 성격은 收奪에 저항하여 일어서는 민란이 반국가적 성격을 띄게 하였다.

한편 제주도의 생활상의 위약상을 증폭시킨 것은 土地保有構造와 租稅收取構造上的의 문제에도 있다. 원래 제주도의 경지는 본질적으로 公土로서⁴⁴⁾ 田畝에는 所

43) 제주도사연구회, 앞 책, 26-27쪽.

44) 제주도사연구회, 앞 책, 116쪽.

有權이 없었으며 그 賣買역시 오직 使用權의 매매에 불가하였다. 대부분의 농민들도 자신의 소유토지가 없이 公土를 借耕하였으므로 地稅가 아닌 地代를 납부하는 국가소작인으로 존재하였다. 45) 따라서 소작인들은 耕作權, 舍音權, 地代率 등이 불안하면 이를 매개로 한 봉건적 收奪, 擄取가 용이하게 자행될 수 있는 土地保有構造를 가지고 있었다.

더욱이 제주도는 貢物上納을 제외하고는 행정과 재정운영이 거의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중앙의 지배를 거의 받지 않는 恣意的인 통치구조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관의 악용의 소지가 많았다. 이러한 통치구조는 열악한 토지보유구조와 결합되면서 지방관의 制度的, 자의적인 租稅收聚를 더욱 가혹하게 하였다. 그래서 제주도에 부임한 목사들은 거의 다 수탈을 일삼았다고 한다. 46)

1894년 이후 비록 甲午改革과 光武改革이 있었지만, 다분히 제도상의 근대적 개혁에 불과하였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종래의 封建的 矛盾이 溫存, 深化된채 일반 민중에게는 제도적 수탈체계가 강화되는 법적조치에 지나지 않았다.

광무정부는 收取制度의 근대적 개혁이란 명목하에 지방재정을 전부 중앙재정에 편입시켜 일원화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乙未事變과 光武查檢을 통해 국가지주제를 강화시키는 한편, 定賭, 加賭, 量田을 통해 결과적으로 지대와 지세를 인상시켜 농민에 대한 收奪을 가중시켰다. 또한 부족한 財源을 확충하기 위해 광무정부는 元定, 結戶兩稅 외에 전에 없던 戶主稅, 文檢稅, 漁場稅, 市場稅 등의 각종 세목하에 雜稅를 부과하기도 하였다. 47) 심지어 한 田畝에 세 가지 세금이 부과되거나 48) 한 물품에 여섯 가지 세금이 부과되는 예도 다반사였다. 더욱이 이같은 조세와 잡

45) 제주도사연구회, 117쪽.

46) 제주도문화공보담당관실, 앞 책, 350쪽.

47) 유흥철, 앞 책, 515-516쪽.

48) 황성신문, 광무 5년 5월 28일.

세의 수취는 중간 수취자에 의하여 배가되는 양상이었다. 광무정부는 派員, 督刷官, 稅監, 봉세관 등으로 불리워지는 세원을 파견하여 세원조사와 세금납부를 독촉하였다. 이들 세원은 조세수취과정에서 해당 사항이 안되는 전답, 물품에까지 과세하거나 기존의 경작권, 사음권 등에 간섭하여 종래의 토지보유구조를 재편성시키는 등 작폐를 불법적으로 자행하였다. 49) 일반 농민들에게 있어서는 중앙-지방 관-농민이라는 조세수취체계가 중앙-봉세관-농민으로 변위됨에 따라, 50) 기존 지방관들의 가렴구주가 은존되던 상태에서 중간 수탈 착취자만 오히려 증가된 셈이 되었다.

이처럼 제도적 자의적 수탈이 가중되던 객관적 상황에서 1898년에는 왕실의 재정을 주관하는 내장원이 설치되어 잡세를 주관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내장원에서는 그 관할도서인 제주도에도 봉세관 강봉헌을 파견하여 각종의 세원조사와 징세를 합은 물론 목사 이하 관리들도 규찰하게 하였다. 그리고 1901년 초부터는 度支部 훈령으로 지세를 조사하여 징수하는 임무까지 봉세관이 겸임함에 따라, 도민들은 중앙의 혹독한 조세정책에 편입되었다. 51)

봉세관 강봉헌은 제주도에서 전권을 행사하면서 징세가 가능한 거의 모든 토지와 산물을 조사하여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였다. 그 한 예로 봉세관은 1두락에 10兩의 賭租를 부과하였다. 52) 규장각에 있는 稅納案을 볼 것 같으면, 1901년 전후 여타 지역의 公土賭錢이 보통 3양 내외였고 광무조검 때 일두락에 평균 3양을 부과하였던 것에 비해, 이는 무려 3배정도나 과도된 무거운 액수였다. 제주도의 농업

49) 황성신문, 광무 5년 4월 16일.

50) 박찬승, 19세기 전반 제주지방 사회경제구조와 그 변동, (서울:교학사, 1986), 305-309쪽.

51) 김윤식, 앞 책, 광무 5년 4월 12일.

52) 전라남북내안, 1901년 6월 2일.

생산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실정이었으므로, 이같은 賭稅額은 기존조세에 대한 濫徵, 疊徵 그리고 각종 산물에 대한 濫執이 추가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제주도 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양이 있다.

또 봉세관은 종래 도민들이 보유하고 있던 耕作權, 舍音權, 租稅徵收權, 都賈權 등에까지 간섭하여 임의로 추정하거나 천주교인에게만 맡겨 중간 착취를 하도록 방조하였다.⁵³⁾ 이는 기존의 토지보유구조와 향촌 질서를 재편성 시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같은 봉세관의 독주가 가능했던 배경은, 첫째, 봉세관의 세폐는 근본적으로 농민대중을 도외시 하고 국가와 왕실 재정만을 위한 광무정권의 조세정책에서 기인하였다. 따라서 봉세관의 존재는 반농민적 국가권력을 매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더 폭력성을 나타낼 수 밖에 없었다.

둘째, 제주도는 대부분의 토지가 국유지였으므로 지대수취의 강화, 또는 농민들의 경작권, 사음권 등에 대한 자의적 탈취, 그리고 각종 산물에 대한 잡세가 용이한 토지보유구조였다. 때문에 전도민에 걸친 봉세관의 봉건적 수탈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세째, 지방관을 감독할 수 있고 조세업무를 장악한 봉세과의 지위는 실질적으로 지방관보다 비교우위에 있었다. 이것이 종래 국가권력의 전횡이 가능했던 통치, 재정구조와 결합되면서 한층 더 극렬히 표출될 수 있었다.

그러나 도민은 수세에 대하여는 국내의 재정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수긍하고 있었으나⁵⁴⁾ 그 과정에서 야기되는 諸般矛盾에 대하여는 많은 불만을 갖고 있었다고 황성신문은 보도한다.⁵⁵⁾ 이 보도에 의하면 교인이 봉세관의 마름이

53) 황성신문, 광무 5년 6월 22일.

54) 김윤식, 앞 책, 광무 5년 5월 30일.

되어 야기시킨 작폐도 볼 수 있다. 이런 만큼 현지에서 이를 목격한 김윤식도 이에 대한 도민들의 저항을 필연적인 것으로 여길 정도였다. 56)

3. 사회·문화적인원인

제주도는 절해고도로서 본토와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位置해 있을 뿐 만 아니라 자연환경도 극악하여 도민들은 항상 빈한한 생활을 해왔다. 또한 중앙정부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관계로 지방관이 赴任하기를 꺼려할 뿐만 아니라, 일단 부임한 관리들도 中央의 관리 소홀을 틈타 그 탐학도 심하였다. 또 고래로 流配地의 대표적인 섬이었으며 특히 민란의 시발지인 대정은 도내에서도 손꼽히는 지역이다. 地政學的으로 謫所로 이용되고 생활의 어려움과 극악한 自然環境은 도민들의 성격을 일반적으로 閉鎖的, 排他的으로 만들어 놓았고, 이것은 異質的인 風習과 함께 외지인들에게 상당한 곤란을 주었음은 조선조 역대 유배인들의 文學作品들 속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57) 제주도의 宗教는 '절 오백, 당 오백'이라

55) 황성신문, 광무 5년 6월 22일.

- 1) 有稅公土를 更執濫擄事
- 2) 有主公土를 出舍音奪耕事
- 3) 派送監色을 專用西敎人하여 興無賴輩 混執公私土討索錢用事
- 4) 公土私音을 專用敎人하여 抑奪窮民先執之田事
- 5) 文廟位土及陳禁之地를 出私音更執卜奪取事
- 6) 墓松港樹園木青草茅草에 徵稅事
- 7) 漁基漁望物을 設始濫擄事
- 8) 各浦所產物을 以敎人執稅定都賣하고 使商民及本主로 不得賣買事
- 9) 火田舊基를 稱以新基하고 再執稅討賂徵擄事
- 10) 家垵를 逐問調查하여 稱云一間稅爲一兩하고 討索錢兩事
- 11) 公土之已入公下區處者를 更爲徵稅事
- 12) 牧養委員이 土鑄烙印하여 盜取牛隻事

56) 김윤식, 앞 책, 광무 5년 5월 9일.

는 말이 나타내 듯이 巫敎와 佛敎가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었다. 때문에 유교적 價値體系 아래 支配階級에 의해 행해진 巫, 佛排斥운동이 큰 결실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도민의 원성만을 샀던 적이 있다.⁵⁸⁾

이러한 狀況에서 제주도에 傳來된 천주교는 강력한 政治的, 經濟的 힘을 背景으로한 外來 종교였다. 거기에는 천주교는 '공격적 이타주의'로 표현할 수 있는 종교적 敎理를 가지고 있었다. 즉 선교사들은 土着民을 野蠻人으로, 제주도를 미신적인 마법사들이 지배하는 곳으로 이해하고 있다. 既存의 가치체계, 傳統, 慣習 및 신앙체계는 모두 破壞되어져야 하고 도민은 천주교에 개종되어서 제주도는 천주교적 가치, 질서 아래 재편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⁵⁹⁾ 이러한 천주교의 독선적인 교리로 인해 몇 백을 헤아리는 절과 당중 상당 수가 교인에 의해 파괴되었다.⁶⁰⁾ 그런데 문제는 황실의 費用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에서 파견된 봉세관에 의해 마을 아낙네들이 수 백년동안 받들어 섬겨온 할망당의 신목을 아무꺼리낌 없이 교인들에게 팔아 넘긴 것이다. 수 백년 묵은 나무를 베어 넘기면 마을 아낙네들을 홀리는 사탄을 쫓아내어 迷信打破도 되거니와 마을 교인들이 모임 分會所를 지을 값비싼 목재도 얻게 되어 여러 곳에서 이런 일이 自行되었다.⁶¹⁾ 천주교의 이러한 도그마와 불법행위들은 토착민에게 문화적, 종교적 侵略行爲로 받아들여졌고 이는 반제의식을 생성시키는 주요한 動機가 되었다고 할 볼수 있을 것이다.

이 민란에서 여성들의 참여도 눈여겨 보아야 한다. 당시의 천주교 측이 제시한

57) 정진각, 1901년 제주민란에 관한 일고, (한국학 논집제3편,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3), 82쪽.

58) 서울대학교 제주학우회편, 제주신당의 내용 및 현황조사 보고서, 1973, 14쪽.

59) 제주도사연구회, 앞 책, 102쪽.

60) 전라남북내안, 광무 5년 6월 2일 제주목사 이재호 보고서 제1호.

61) 서울대학교 제주학우회편, 앞 책, 102쪽.

황성신문, 광무 5년 6월22일.

'狀頭姓名錄'에 의하면, 제주군 장두 46명 중에서 여성 장두가 무려 18명이나 되고 있고 그들 대부분이 巫女 또는 妓女들이었다. 62) 그리고 이들 여성의 役割은 매우 큰 것으로 민군이 교인이 장악하고 있던 제주성을 함락시킬수 있었던 것도 성내의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呼應하였기 때문이었다. 63) 민란이 정부군과 프랑스군에 의해 진압된 후에도 각처에서 제주도 여인들은 연일 장두의 체포를 伸救하고 천주교 作弊의 根絶을 외치면서 운동을 전개하였다. 64)

이와 같이 천주교에 의한 帝國主義的 宗教侵略은 곧 도내에서 반제의병전쟁으로서 인식케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고 천주교측에서는 이를 이교도 및 사탄과 싸우는 성전으로 규정하는 근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2) 김옥희, 앞 책, 부록 제주대정군사립상무사수괴급3군각리장두성명록.

63) 김윤식, 앞 책, 광무 5년 5월 25일.

64) 김윤식, 앞 책, 광무 5년 5월 28일.

IV. 제주도 신축년 민란의 경과

1. 민란의 발단

제주도의 열악한 사회 경제적구조 위에 帝國主義 세력의 진출에 의한 봉건적인 構造的 矛盾의 深化는 도민을 더욱 궁핍화 시켰고, 國家權力の 지방권력에 대한 統制力 喪失은 제도적 恣意의 收奪을 더욱 심화시켰다.⁶⁵⁾ 그러므로 皮支配 民衆은 生存을 위해 최후의 수단에 호소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이 곧 집단적인 民衆抗爭의 형태로 表出된 것이다.

1901년 초 지방관의 貪虐과 봉세관에 의한 수탈적인 租稅收聚構造의 재편으로 2중 3중의 착취를 당한 데다가 교인들의 불법행위로 제주도민들의 적대적인 갈등과 위기의식은 한층 고조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1901년 5월 초 대정군민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의 항거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이 민란의 직접적인 발단은 '吳信洛 事件'이다. 이 오신락 사건은 광무 5년 2월 9일에 일어난 사건으로 정의에서 교인과 분쟁이 있었던 오신락이 교당에 끌려가 학살되는 사건이 있었다.⁶⁶⁾ 오신락의 죽음에 관하여는 각 史料마다 다른 기록들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鄕土 사학자들과 천주교 측⁶⁷⁾의 입장이 對立되고 있으나, 金元永 신부에 의해 끌려가 매를 맞은 것은 확실하니 이것은 도민에게 자극을 주기에 충분란 사건이었다.⁶⁸⁾ 그리하여 도민들은 나뉘대로 통문을 돌려 교회

65) 제주도사연구회, 앞 책, 104쪽.

66) 황성신문, 광무 5년 5월 6일 (봉세관 강봉헌의 보고).

67) 향토사학자로는 김태능과 홍순만이 천주교 측 학자로는 유흥렬과 김옥희가 대표적이다.

68) 김옥희 앞 책, 230쪽.

와 담판하려 하였고 천주교인들도 이에 대항할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같은해 5월에 이르러서는 대정군수 채구석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商武社와 천주교도 사이에 衝突事件이 벌어졌는데 이 충돌사건에 대해서 김윤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천주교인 副由吏가 좌수 오대현의 妓妾을 姦通한 것이 관에 告發되어 杆引妻妾罪로 매30을 맞고 옥에 갇혀있었다. 그런데 천주교인인 김진사가 그의 무리 50여명을 이끌고 대정군수에게 와서 교도를 때리고 가둔 연유를 성토했고 임의로 獄門을 열고 副由吏를 釋放시킨 후 상회민을 잡아가지니, 이에 상무사에서도 역시 무리를 모아 길에서 잡혀간 상회민을 구출하고 교도 7, 8명을 毆打하여 그 중 두 사람을 거의 死境에 이르게하였다.”⁶⁹⁾

이리하여 5월 중순경에는 대정군민들이 통문을 돌려 民술을 하였고 정의군, 제주군 등지의 주민도 참여하였다.⁷⁰⁾ 이 민회에서는 봉세관의 稅弊와 앞에서 논한 천주교의 敎弊를 聲討함은 물론 제주성으로 가 이들 폐해를 시정해줄 것을 목사 와 봉세관에게 등소하기로 결의하였다.

그 후 다른 도민들도 다투어 모여들면서 12일경에는 오대현, 강우백을 장두로 하여, 오대현은 서쪽으로, 강우백은 동쪽으로 제주성을 향하여⁷¹⁾ 대정군 민회소를 출발하였다.

69) 김윤식, 앞 책, 광무 5년 5월 8일.

“---大靜副由吏 招引吳座首大鉉妓妾 事發告官 副由吏入教者也 大靜守以奸妻妾之罪 決答三十囚之 恐教民有言 亦答朴(吳)座守十五度放之 教人金進士聚黨五十名入邑 面謁大靜守仗囚教囚之故且 曰 所謂商務社---”

70) 김윤식, 앞 책, 광무 5년 5월 12일; 전라남북내안 광무 5년 5월 5일.

71) 전라남북내안 광무 5년 5월 6일.

이렇게 비롯된 민회는 어디까지나 집단적인 등소를 통해 民意를 貫徹시키려는 온건적, 합법적, 비폭력적 차원에 있었다. 그 한 예로 제주목사 겸 제주군수였던 김창수가 5월12일 한림동 민회소를 찾아가 봉세관은 이미 5월10일 출륙하였고 민원에 따라 일체의 弊를 상부에 보고하여 혁파함은 물론 교폐를 통금할 것이니 즉시 解散하라고 하였을 때, 5월 16일 황사평에서 혁파사항을 공의, 등소한 뒤 관에서 이를 지키겠다고 문서로서 확약해 준다면 해산하겠다고 하였다.⁷²⁾ 이같은 방법은 1898년 관을 상대로 武力에 의존하였다가 비참한 최후를 가져온 經驗의 反省에서 나온 것이다.⁷³⁾

한편 도민들의 민회, 등소의 소식을 전해들은 천주교도들 수백명은 신부 구마실을 중심으로 14일 한림동 민회소를 찾아가 총을 쏘면서 장두 오대현 이하 6명을 잡아 목사에게 넘겼다. 또 신부와 교도들은 대정에 입성하여 무기고를 부수고 총, 검, 포 및 화약을 탈취하여 민당 몇 명을 죽이는 등 총포를 마구쏘아 도민들을 해산시키려 하였다.⁷⁴⁾

그러나 이 민회, 등소의 성격은 봉건적인 수탈적 조세수취구조의 변혁에 1차적인 주안점을 둔 반봉건적운동이었고 천주교 문제는 부차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5월9일경 대정군수 채구석이 민회소를 찾아가 그 원인을 물었을 때 주로 세폐를 호소하였다.⁷⁵⁾ 또 5월12일 목사에게 올린 '濟民等所'의 내용이 주로 봉세관의 雜稅, 濫執과 교인들의 校弊이었지만 세폐에 더 비중을 두고 있었고, 등소의 대상도 목사와 봉세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⁷⁶⁾

72) 김윤식, 앞 책, 광무 5년 5월 13일.

73) 제주도문화공보실, 앞 책, 346쪽.

74) 김윤식, 앞 책, 광무 5년 5월 15일; 전라남북내안 광무 5년 5월 6일.

75) 전라남북내안 광무 5년 5월 10일.

76) 김윤식, 앞 책, 광무 5년 5월 9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프랑스 신부와 교인들의 대응전략은 이 민회를 어디까지나 천주교를 打倒하기 위한 반란으로 規定, 회민을 暴徒로 간주하고서 武力에만 依存하려하였다. 천주교 측은 민회 초기부터 각지의 교인 천여명을 소집하고 총기들을 준비하였는가 하면 5월10일에 중앙으로 구원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77)

이에 격분한 도민들은 이재수의 지휘아래 무장하여 다시 모일 것을 약속하고 대정으로 철수한 후, 마을에 檄文을 돌려 장정 수천명과 총포 등 포수 40명을 모집하였다.

이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프랑스 신부가 다른 농민봉기 처럼 장두만 체포하면 자연히 해산할 것으로 판단하면서 안일하게 자행한 일이었다. 민회의 실상을 무시한 천주교측의 무력적 強勁對應은 오히려 도민들로 하여금 등소를 통한 은건노선에서 무력투쟁에 의거한 강경노선으로 급선회하는 새로운 국면을 초래하여 교인들에 대한 전면투쟁으로 나가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2. 민란의 경과

1차 봉기에서는 봉건적인 수탈적 조세수취구조의 變革을 은건적, 합법적, 비폭력적으로 해결하려던 비폭력봉기에서 무장한 교인들에 의해 무참히 패배당한 민군들은 새로이 전열을 정비하여 조총 및 죽검으로 무장하는 한편 3군에 통문을 보내어 이 사실을 알리고 봉기할 것을 요청하였다. 3군의 도민들이 분연히 일어서서 이에 呼應하게 되면서 항쟁은 국지성 및 분파성을 극복하여 제주성내 무장 교

77) 김윤식, 앞 책, 광무 5년 5월 9, 10일.

인들을 상대로 무장투쟁으로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민군은 이재수와 강우백 등 각각 西陣과 東陣의 장두로 해서 곳곳에 둔취해 있는 도민을 취합하여 교인들이 무장하고 있는 제주성으로 진격하여 성 밖 황사평에 집결하였다.⁷⁸⁾ 이때부터 교인과의 공방전에 들어가 천주교측에서는 방어전, 민군에서는 공격전의 양상을 띄게 되었다.

그런데 2차봉기에서는 장두의 구성이 1차봉기 때와는 사뭇 달랐다. 관노 출신인 이재수와 火田民 출신인 강우백이 동, 서진 대장을 각각 맡아 지도하게 되었는데 이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초기단계 및 1차 봉기 때와는 달리 2차 봉기에서는 관비 및 화전민에 의해 지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각 단계에 따라 민란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기때문이다. 즉 지도부의 개편에 따라 민중에 의한 반봉건적 무장투쟁을 전개할 수 있게된 것을 의미한다.⁷⁹⁾ 이는 당시 유럽에 의해 주도되는 유교주의적 반제의병전쟁과 평민의병전쟁과의 성격의 상이함과도 흡사하다 할 수 있겠다.

5월17일경 황사평에 포진하여 교인과의 공방전을 벌일 때의 민군의 수는 <속음청사>에서는 수만이라고 적고있으나 정확히는 알 수 없다.⁸⁰⁾ 한편 교인들은 관가의 군기고를 열어 포, 창, 군화물을 탈취하고 대포를 성벽위에 설치하는 한편, 성내에 있는 非교인에게 교인들에게 합세하도록 강요하고 4성문을 굳게 닫아 성을 방비하였다. 5월17일에는 프랑스 신부와 유배인 최형순이 교인들을 이끌고 광양촌에 모여 있는 민군에게 먼저 발포하여 13여명을 살상하였다.⁸¹⁾ 이에 따라 양자간의 대립은 더욱 악화되었으며, 교인들로부터 선제공격을 당한 민군들은 더욱 戰

78) 김윤식, 앞 책, 광무 5년 5월15-18일.

79) 제주도사연구회, 앞 책, 109쪽.

80) 김윤식, 앞 책, 광무 5년 5월 16, 7일.

81) 김윤식, 앞 책, 광무 5년 5월 17일.

意를 굳히면서, 일인 어부 荒川으로부터 조총 50정을 구하여 전력을 증강하였다.

82)

이렇게 공방전을 펼치는 가운데 민군을 자극하는 일이 일어났으니, 프랑스 신부는 유배 죄인인 장원선을 목포로 보내어 프랑스 군함을 要講하게 함으로 민군은 제주성에 대한 철저한 포위작전 내지는 봉쇄작전을 조직적으로 수행하여 83) 각 읍민에게 성내에의 식량과 쌀감의 판매를 금지시키는 한편, 성중의 비교도들에게 발통하여 봉기할 것을 청하여 성내 攪亂을 획책하였다. 이때에 제주 목사와 대정 군수는 이들을 화해 시키고자 몇 차례 시도 하였으나, 프랑스 신부는 민군에 대해 무조건 해산할 것을 강요하였고, 민군은 세폐 및 교폐의 근절과 84) 민군을 살해한 자들 85) 의 처단을 해산 조건으로 요구하였다.

5월23일부터 민군이 성공격을 한층 강화하자 프랑스 신부는 14일 체포한 오대현 등 12명을 석방하여 프랑스 군함이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을 벌기 위하여 회유책을 쓰기도 하였다. 86) 대치 상태가 계속되므로 말미암아 성이 봉쇄되어 食糧과 쌀감의 공급이 중단되자 성내 읍민들은 점차 童謠하고 반발하기 시작하였으며 성문을 열고 민군을 맞을 것을 주장하게 되었고, 프랑스 신부는 군함이 도착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고 믿고 성내 읍민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이를 참지 못한 읍민들은 28일에 이르러 총포를 거두고 성문을 민군에게 열 수 밖에 없었다.

5월28일 민군은 4門에 ‘-. 擗稅官 稅弊, -. 敎弊, -. 戊戌倡義之罪’를 揭示하고

82) 김윤식, 앞 책, 광무 5년 5월 19일.

83) 김윤식, 앞 책, 광무 5년 5월 20-22일.

84) 김윤식, 앞 책, 광무 5년 5월 18-21일.

85) 김윤식, 앞 책, 광무 5년 5월 22일.

86) 김윤식, 앞 책, 광무 5년 5월 22-23일.

이의 척결을 내외에 천명하였다. 87) 입성한 민군들은 성내에 있던 교인들을 처형하였으며, 민군에 의해 죽은 교인의 수가 거의 300여명에 이르게되었다. 88) 이는 거의 이재수가 이끄는 서진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續陰晴史>에는 이를 두고 '西陳好殺人心'이라 하고 있다. 그러나 민군들은 이재수의 잔인성에도 불구하고 장두의 역할에 절대적 지지를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진장두 오대현과의 노선상의 대립속에서 민군의 성원과 지지속에 주도권을 장악한 이재수는 진압군이 온다는 소문에 의해 3군민에 통문하여 장정을 모음으로 이에 대한 방어태세를 갖추었다. 89)

5월31일 270명의 프랑스 해군과 새로 부임하는 목사 이재호를 실은 2척의 군함이 중국으로부터 인천을 거쳐 산지포에 도착하면서 90) 민란은 진압되기 시작했으며, 그때는 이미 도내 천주교 신자 700여명이 관덕정 마당 등지에서 처형당한 도내의 상당한 피해자가 있는 뒤 였다. 또 6월2일에는 정부군인 강화진위대수병 100명과 미국인 궁내부 고문관인 샌드가 派遣되어 민군으로부터 제주성을 탈환하였다. 민란은 프랑스 군함이 파견됨으로 해서 局地的 사건이 國際的, 國家問題로까지 비화되었고, 제주성을 빼앗긴 민군은 해산하지 않고 성밖에 流屯하여 계속하여 싸울 것을 천명하여 전의를 가다듬은 가운데 6월23일에 동진장두 오대현과 신임 목사 및 정부군대장 사이에 화해가 성립되어 민군의 해산을 전제조건으로 一切의 세폐 및 교폐를 혁파할 것과 민란의 죄를 묻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민군들은 이를 단지 사태수습을 위한 임기응변의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군은 성중민에게 발통하여 같이 싸울 것을 호

87) 김윤식, 앞 책, 광무 5년 5월 28일.

88) 황성신문 광무 5년 6월 7일.

89) 김윤식, 앞 책, 광무 5년 5월 30일.

90) 김윤식, 앞 책, 광무 5년 5월 31일.

소하는 한편, 일대 결전을 치를 준비를 하였다. 91)

민군은 정부군의 내도로 인해 내부갈등이 더욱 深化되는 속에서 정부군 및 지방관은 脅迫과 回遊를 동시에 받고 있었고, 정부군은 재차 증파를 요청하여 6월10일 찰리사 황기연이 신식 무기로 무장한 정부군 200명과 함께 내도하였다. 한편, 内部葛藤으로 두렵한 對應策을 講究하지 못하고 있던 민군은 정부군의 위세에 놀려 해산을 조건으로 和解에 응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군은 敎弊 및 稅弊의 根絶과 민란의 責任을 묻지 않는다는 약속과는 달리 장두 40여명을 체포하였다. 이에 민군은 해산하지 않고 장두의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를 계속하였으나 체포된 장두들은 곧 서울로 압송되고 남은 민군들은 생업의 문제로 점차 해산되기에 이르렀다. 92)

3. 민란의 事後處理

6월10일 재차 정부군이 내도함으로써 민란이 진정기미를 보이자 이내 정부군은 장두40여명을 체포하여 7월18일 세 장두가 40여명의 관련자와 함께 서울로 압송되는 것을 끝으로 이 항쟁은 정부군에 의해 진압되고 말았다.

그러나 제주도민은 이 항쟁을 통해 어느 정도의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6월17일에 찰리사는 세폐의 혁파에 관한 17개조항을 천명하였다. 93) 이 조항은 민군의 등소 내용이 무명잡세를 혁파하고 정세만 징수한 조세수취구조의 변혁을 꾀했던 점과 94) 1904년경 제주도 조세가 地稅, 戶布稅, 漁船稅 정도였던 점에

91) 김윤식, 앞 책, 광무 5년 6월 9일.

92) 제주도문화공보담당관실, 앞 책, 349-350쪽.

93) 김윤식, 앞 책, 광무 5년 6월 17일; 황성신문 광무 5년 6월7일, 21일.

94) 김윤식, 앞 책, 광무 5년 6월 5일.

비추어 볼 때 도민들의 요구가 나름대로 貫徹되어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察理使는 목사, 3군수, 프랑스 신부와 더불어 교폐방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7월2일 12개조로 된 '敎民和義約定'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도민들은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이 사건의 처리 문제인 장두들의 裁判문제와 賠償문제, 살해된 교인들의 장지 문제 등은 韓佛간의 중대한 외교 사안이 되었으며,⁹⁵⁾ 7월18일 서울로 압송된 장두들은 프랑스의 간섭을 받으면서 평리원의 재판을 통해, 이재수, 강우백, 오대현은 10월9일 교수형에 처해졌고, 대정군수 채구석은 몇 년간 구속 되었다가 풀려났다.⁹⁶⁾ 그리고 프랑스 정부의 끈질긴 요구에 의해 배상금 6,315원이 제주도민 전체에 부과되었고 민란 도중에 살해된 교인들의 장지가 광무7년 말 황사평으로 결정되었고, 광무8년(1904) 5월에 프랑스 공사에게 배상금을 완납 함으로서 일단 신축년 민란의 사후처리는 종결되었다.⁹⁷⁾

95) 김육희, 앞 책, 172-225쪽.

96) 김윤식, 앞 책, 광무 5년 9월 4일.

97) 황성신문 광무 7년 11월 20일, 광무 8년 6월 1일.

v. 제주도 신축년 민란이 제주도 敎會形成에 미친 영향

1. 한말 천주교의 性格

16세기 이후, 구미열강제국에 의한 지리적 발견과 함께 천주교의 세계포교사업은 본국정부의 絶對的 지원속에 본격화되었다.

이는 征服과 改宗이라는 목적아래 중상주의적 절대주의 국가와 천주교와의 상호보완 관계가 構築되면서 이루어졌다. 당시 이를 주로 담당한 국가는 宗教改革의 영향을 크게 받음이 없이 여전히 천주교를 국교로 하는, 서남유럽의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3국이었다. 이 절대주의 시대에, 내부에서는 絶對王權과 교회권과의 갈등, 대립이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었고 특히 17세기후반 이후에는 理性主義, 啓蒙主義의 登場으로 교회세력이 쇠퇴하면서도 정복사업의 일환으로서 해외포교사업은, 국가에 의해 더욱 권장되고 적극적 지원을 받게 되었다.⁹⁸⁾ 여기에는, 유럽이라는 가치체계의 비유럽지역에의 전파 및 확산이라는 백인의 責務, 즉 공격적 이타주의가 뿌리잡고 있었다.⁹⁹⁾

때문에 비기독교지역은 野蠻人 내지 未開人이 사는 곳으로서 정복 및 개종의 대상이고 기존의 가치체계는 破壞의 대상일 따름이었다.¹⁰⁰⁾

이당시 동양의 전교사업은 중국을 중심으로 포르투갈의 예수회가 거의 독점하고 있었다. 그러나 18세기 후반 본국정부의 지원이 중단되면서 예수회가 해산되었고, 이를 계기로 천주교의 동아시아 전교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이와 함

98) Jott, Mark, 카톨릭교회사, 김창수번역, (서울:카톨릭출판사, 1959), 111-140쪽
쪽.

99) K. E. Bolding, 계국주의의 계 관점, 한주환, 김장호 공역, 149쪽.

100) 廣瀬和子, 國際法學 再構成 の下卷, 동경대학출판회, 149쪽.

께, 19세기에 들어서면서 계몽주의에 이어 侵略主意가 風味함에 따라 국가교회주의에 의한, 교회의 국가에의 예속상태가 강화되었다. 101)

19세기는 교회사가들에 의해 포교의 세기 또는 '布敎의 全盛期'로 불리워질 만큼 해외 포교사업은 본국정부의 전면적인 지원 및 保護아래 대대적으로 전개되었고 자본주의 세력과 전교단의 협력관계는 더욱 친밀하게 결합되어갔다.

이는 상호간 필요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즉 포교사업에 있어서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원조 및 보호를 필요로하였으며, 자본주의 侵略 세력에게는 식민지 및 시장의 확보를 위해 선교사들의 情報, 知識 등의 협력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빈발했던 교안을 통해 침략의 발판을 제공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102)

조선이 學文으로서가 아니고, 宗教로서 천주교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은 18세기말 이후부터였다. 때문에 조선천주교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양에 대해 포교의 중심인 파리외방전교회와 이에 대해 독점적인 지배권을 갖고 있던 프랑스와의 관계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103)

중세적 봉건질서가 해체되면서 강력한 중상주의적 절대국가로 발돋움한 프랑스에 있어서 천주교는 국교로서 자기개혁을 시도하였다. 그중 가장 특기할 만한 것은 그 이후 프랑스 성직자에게 큰 영향을 끼친, 17, 8세기의 갈리아니즘(Gallikanismus)과 얀сени즘(Jansenismus)이다. 104) 갈리아니즘은 국가교회주의로서, 프랑스의 절대군주의 상징인 루이 14세대 제창, 정착되면서 프랑스 천주교의 성격을 규정 짓는 한 요소가 되었다. 이는 교황의 프랑스 교회에 대한 지배권의

101) Jott. Mark, 앞 책, 120쪽.

102) Stephen. Neill, Colonialism and Christian Missions, (New York, 1966) 412-416Whr.

103) 제주도사연구회, 앞 책, 132쪽.

104) 노길명, 한국사회와 카톨릭시즘, (경북: 분도출판사, 1983), 200-204쪽.

축소를 말함과 동시에 교회의 예속화의 심화를 뜻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절대주의가 산업자본주의로 그리고 제국주의 단계로 발전하면서 더욱 심화되어 갔다. 105) 파리의방전교회가 교황청의 포교성 소속이면서도 프랑스가 독립적 지배권을 행사하게 되면서, 傳敎사업이 국가의 전면적 지원 아래 이루어지고 교안이 곧 국가간의 문제로 비약되는 것은 바로 여기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106)

안세니즘은 18세기 이후 교계를 휩쓸었던 경건, 보수주의로서 신앙적으로는 來世중심적이며 獨善, 權威主義的이고 문화적으로는 유럽문화 絶對優位主義요 유럽중심의 세계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그후 프랑스 성직자의 주요한 사상적 기반을 이루고 있다. 이것이 비유럽지역 전교로 이어지면서, 대상지역의 傳統, 宗教, 儀禮, 倫理 등 기존의 價値體系 및 社會構造는 破壞의 대상으로 거부되어지면서 쉽게 백인의 책무아래 식민주의와 결부되어졌던 것이다.

조선 천주교의 내세지향적 권위주의 성격의 사회의식 등은 이러한 사상적 경향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겠다. 107)

갈리아니즘과 안세니즘의 영향 아래 프랑스 교회가 내부진통을 거치면서 국가교회주의 및 유럽중심주의로 성격이 전환되면서 전교사업은 점차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侵略의 道具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108)

조선에서도 황사영 백서사건에서 처럼, 봉건지배권력에 의한 1801년의 辛酉迫害시 서양의 軍事的, 政治的 힘을 빌어 신앙의 자유를 획득하려는 천주교도측의 기

105) Jseph. Houvie편, 카톨릭사상사, 강성위역, (서울: 카토릴출판사, 1965), 185-188쪽

106) 제주도사연구회, 앞 책, 133쪽.

107) 노길명, 앞 책, 203-204쪽.

108) S. Neill, 앞 책, 11-12쪽.

도가 있었던 가 하면 프랑스 정부는 1839년, 己亥迫害사건을 구실로해서 무력으로 문호를 개방시켜 조선에 진출을 꾀하고자 하기도 하였다. 109)

프랑스 선교사들의 안세니즘적인 경향 곧 유럽중심의 세계관, 유럽문화 절대우월주의, 경건, 보수주의 등은 17, 8세기의 예수회의 補儒論的 適應主義와는 달리 東洋의 價値, 傳統과의 接畛을 거부하면서, 종종 봉건적 支配原理인 儒敎와 葛藤을 露出하고, 봉건지배권력으로 부터 박해를 받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은, 1876년 조선이 일본과 개화하게 되는 것을 기점으로 하여 구미열강과 開港하게 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즉, 조선의 제국주의적 세계체계에 편입되어 從屬化되면서 프랑스와의 관계는 새로이 정립되고, 조선 천주교의 성격 및 위상도 이에 따라 변하게 되었다. 조선과 프랑스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천주교를 매개로하여 깊은 관계에 놓여 있었으나 다른 구미열강보다 매우 늦은 것이 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1886년 6월, 프랑스는 전교 및 통상상의 불이익을 입지 않기 위해, 그리고 선교사 및 천주교도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한불통상 수호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은 다른 구미열강과의 거의 같은 것으로서 最惠國定款 및 無關稅權, 治外法權, 領事裁判權, 傳敎의 자유 및 보호규정 적용은 선교사들에게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내국인에게도 억지로 적용하려 하였다. 제국주의 열강에 의해 조선이 半植民地化, 半主權國으로 전락하면서 이런 사태가 더욱 심화되어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110)

천주교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뒷받침으로 해서 정치적 특권을 향유하는 집단으로 행세하게 되었고 이는 주권을 위협하는 행위로까지 발전하게 되면서 종래 봉

109) 제주도사연구회, 앞 책, 134쪽.

110) 제주도사연구회, 앞 책, 137쪽.

건적 지배세력과의 葛藤관계는 매우 다른 새로운 次元의 갈등관계를 만들어 내는 要因이 되고 있었다. 천주교는 정치적 특권세력으로서 존재하게 되고 봉건적 지배세력으로부터 수 없이 彈壓을 받아오던 계층이 정치적 특권의 보호 및 원조를 갈망하며 입교하게 되었다.

천주교가 이제 정치세력화된 종교체계로 존재하게 되면서 이러한 정치적 특권, 원조, 보호등을 필요로 하는 계층이 주로 입교하게 되었고 그 수는 급증하였다. 입교자는 지배관료, 개화지식인, 민란관련자 등 다양하였다. 이러한 복합적 성격속에서 종종 불법적 특권행사가 이루어지고, 때문에 말단 지방관료 및 민중과의 사이에 마찰 분쟁이 야기 되었다. 선교사에 의해 전통적 의례 및 토착종교등에 대한 폭력적 파괴행위도 자행되기도 하였다.

2. 제주도 천주교와 그 교계

천주교는 국내에서 오랜기간 박해를 받아오다 1886년 韓佛修好條約과 1896년 敎民條約 등으로 선교와 신앙의 자유를 획득한 프랑스 천주교는 1900년을 전후하여 특권을 향유하는 정치세력으로 등장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주권을 위협하는 제국주의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으며 19세기 프랑스의 제국주의적 침략은 천주교의 교세확장과 密接한 관련이 있다. 111)

실제 구한말 천주교는 국가 내의 국가와 같은 조직체계를 통해(信徒-神父-主教-佛國公使) 치외법권적인 특권을 누리면서 포교활동을 꾀하였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합법적인 활동을 보장받았다고 하여 그것이 곧 선교사업의 수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전통적인 유교사상과 민간신앙에 의한 서교의 排斥은 교도와 비교도간의 잦은 충돌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천주교는 선교

111) 제주도사연구회, 앞 책, 137쪽.

에 위배되는 전통적인 가치체계나 토착종교 또는 반대 세력을 전면 부정하는 측면이 있었다.

천주교가 전래된 이후 반 봉건적 의식이나 사회개혁 의식과 결부되어 社會變革에 기여한 바도 있으나 이에 수반되어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敎弊는 민중들로 하여금 반서교의식을 자극하였고 等訴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하였다. 112)

이러한 천주교가 제주도에서 들어오게 된 것은 민란이 발생하기 불과 2-3년전의 일이다. 제주도에 천주교의 포교활동은 민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갑자기 활발해져 입교자가 영세자 242명, 예비신자 6·700명에 이르게 되었다. 113) 천주교의 불모지에서 불과 2,3년 사이에 일천여명 가까운 신자가 생겼다는 사실은 천주교 선교활동의 면으로나 혹은 그 정치적 측면으로나 상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그 원인에 대해 김육희는 '人間平等에 의한 천주교의 인자한 정신'에서 또 '정치적 腐敗에 대한 민생교의 탈출구'로서 천주교를 찾았다 114) 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입교한 사실도 있었겠지만 또 다른 이유는 천주교가 뚜렷한 정치세력으로 자리하게 되는 데도 원인이 있다.

제주도에 유입된 천주교의 이러한 상황은 전술한 바와 같이 佛國신부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치외법권의 남용으로 교도들로 하여금 獨善的, 威脅的으로 행동하게 하였고 이러한 행동은 도민을 자극하기에 충분하였으니 이것은 난 직후에 정부에 보고된 교폐에 대한 조목에서도 잘 나타난다. 황성신문에 보도된 17조목은 그 사실을 더욱 잘 알려 준다. 115)

112) 황성신문 광무 6년 6월 28일.

113) 김육희, 앞 책, 270쪽.

114) 김육희, 앞 책, 193쪽.

115) 황성신문 광무 5년 6월 21일.

- 1) 擅殺人命하되 官不得拿獲檢屍事
- 2) 私奪人之婦女하되 民不得開口事

- 1) 살인이 있었으나 관에서 시체를 검사하는 일을 못하게 하고
- 2) 남의 집의 부녀를 빼앗되 사람들이 입을 열어 소문을 내지 못하게 하고
- 3) 밭과 집을 사서 시간이 지나 살 때의 값보다 배로 함으로서 본래의 값을 빼앗으려 한 일
- 4) 평민을 체포하고 결박하고 구타하는 일
- 5) 평민을 곳곳에서 보고하게 하고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추측한 바를 고집하여 주장하는 일
- 6) 밤을 타서 도당을 이끌고 와서 민간의 물건을 탈취하는 일
- 7) 부지런히 교리책을 전하고 곡식과 돈을 토색하는 일
- 8) 길에서 사람을 만나면 강제로 교리책을 맡기는 일
- 9) 타인의 묘에는 무단입장하고 교인의 묘에는 입장을 금하는 일

-
- 3) 年久賣買田宅이 倍於時價者를 以本價勒奪事
 - 4) 平民을 傳命足致하여 結縛毆打事
 - 5) 平民處所報卒不報하고 所推卒勒推事
 - 6) 乘夜率堂하여 奪取民物事
 - 7) 橫行材閭하여 勒任教冊하고 討索穀事
 - 8) 行路逢人에 無端執奪하고 勒任教冊事
 - 9) 他人墳墓禁制內에 無斷入葬하고 教徒墳墓엔 雖禁外 嚴禁事
 - 10) 招聚徒黨하여 必報涯毘之怨事
 - 11) 任意斫取空地樹木事
 - 12) 自捧稅官出舍音하여 聚耕半民先執納稅之田事
 - 13) 大同捧稅官하고 僞執稅監索하여 討索錢兩事
 - 14) 自官捉去之罪人을 稱以教人하고 中路奪去事
 - 15) 教人之 犯罪者를 官或捉囚卒 稱以教人是法國人하고 率堂執囚去事
 - 16) 教人與平民 若有言길즉執言於教師하여 謂之毀教하고 率徒捉去用 刑事
 - 17) 設刑具鞭苔 及拘留問하여 捉致平民用刑牢囚事

- 10)도당을 불러 모아서 원수를 갚아야 한다고 원망하는 일
- 11)임의로 공지에 있는 수목을 베는 일
- 12)스스로 봉세관의 마름이 되어 평민들의 논밭에 짐세하는 일
- 13)봉세관과 결탁하여 토색하는 일
- 14)관에 잡힌 죄인을 교인이라 칭하여 중간에 빼앗아 버리는 일
- 15)교인은 프랑스인이니 체포도 못하고 체포된 교인을 임의로 석방 하는 일
- 16)평민이 교인을 힐난하면 교회를 훼방한다고 하여 형을 가하는 일
- 17)교당에 형틀을 설치하고 가두고 형을 가하는 일

위에 열거한 사항을 살펴보면 천주교의 포교를 꺾는 과정에서 일어난 敎幣라기 보다는 천주교를 庇護하는 세력의 배경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수있다. 그러나 김옥희는 당시의 김원영신부의 보고내용의 천주교 교세로 보아, 또 김윤식의 속음 청사도 소문에 의해 기록되었다고 주장하며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16)

그러나 구마술신부의 서간에 의하면 김원영신부의 민간인 매질사건을 보고하고 있으며, 117) 교도들이 봉세관의 마름으로 행동하고 있으며, 민간 사이에 전래되고 있는 민요 가운데서도 교인들이, “관장알기를 자기집 머슴부리듯”한다 118) 는 것은 교도들의 폐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때 민당이 주장하는 교폐를 부정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이러한 교인들의 행위는 치외법권적인 프랑스 신부의 존재와 제주도내에서 경

116) 김옥희, 앞 책, 227-228쪽.

117) 김옥희, 앞 책, 230쪽.

118) 황성신문 광무 5년 6월 22일.

제력을 장악한 봉세관과 결탁하므로 가능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프랑스 신부들의 교인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방관하고 치외법권을 남용하여 관사에 까지 간섭함으로써 더욱 가속화되었다. 더우기 외래종교인 천주교는 既存의 가치체계와 토착종교를 부정하였기 때문에 토착종교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일반 도민 에게는 文化的, 宗教的 侵略者로 천주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3. 교회형성에 미친 영향

개신교 제주도 宣敎 초기의 歷史는 수난의 연속 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난의 역사적 사료는 거의 없으며 몇몇 기록들이 단편적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제주도 교회형성은 이러한 단편적인 記錄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1901년 제주도 신축년 민란이 제주도 교회형성에 미친 영향을 서술함에 있어 이 민란이 발생한 시기와 개신교 선교의 時差가 7년이나 공백이 있어, 여러 각도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심정은 있으나 자칫 恣意的인 해석에 의해 歪曲될 소지도 없지 않아 상당히 조심스러운 시도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초두에 일어난 구한말 최대의 民亂 중에 하나인 제주도 신축년 민란을 심도있게 다루지 않을 수 없어 기초적인 사료에 의해 전술한 바와 같이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외래 종교에 대한 도민들의 排斥은 천주교가 종교로서 제주도에 流入되고 나서 치외법권적인 정치적 특권을 향유하고 조세징수권자인 경래봉세관과 결탁되면서 농민에게는 封建的 收奪者로서, 상인에게는 既得적 商權을 빼앗으려는 침략자로서, 지방 지배세력에게는 조세징수권을 빼앗는 세력으로, 그리고 토착종교

신앙인, 특히 부녀자에게는 종교적 侵略者로서 받아들여 졌기 때문이다. 교회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신축민란이 제주도에 流入된 천주교는 유럽중심 사관을 가지고 천주교도는 문명 개화인이고 도민은 야만인 내지 미개인이라고 하는 植民地的 論理를 전개함으로써 도민들의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16세기 이후 정복과 개종이라는 목적하에 구미열강들이 전개한 종교정책을 제주도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제주도에서도 그대로 적용시키므로 해서¹¹⁹⁾ 도민들에게 교회가 적대세력으로 남아있게 되었다.

종교체계인 천주교가 어찌하여 민중에 의해 침략세력으로 받아들여졌는가? 선교2세기를 맞이하는 제주도의 교회가 신축년 민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제주도의 교회가 교회형성의 부정적영향을 미친 신축년민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선교 2세기를 준비하는 제주도 교회가 풀어야 할 숙제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제주 선교의 저해 요인은 샤머니즘이나 무속신앙 등에서 오는 도민들의 閉鎖性, 排他性, 때문이라 하나, 그보다 근본적인 것은 도민들에게 상처를 안겨다준 신축년 민란의 영향이 더 크다고 하겠다. 그 예로 1901년 민란이 일어난지 60년이 지난 1961년 신축년에 대정읍 보성리에 신축년 민란으로 교수형 당한 이재수, 오대현, 강우백의 넋을 기리기 위해 '濟州大旌君 三義士碑'를 세운 것과¹²⁰⁾ 제주도 최초의 성당지의 하나인 정의 흥토에는 아직까지 천주교의 신도가 몇호에 불과하다.¹²¹⁾

1980년 발간된 김옥희의 '濟州道 辛丑年 敎亂史'의 발간에 즈음하여 흥충수신부(당시 제주교구 사무처장)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여러가지 상황을 주관적인

119) 제주도사연구회, 앞 책, 92쪽.

120) 김태능, 제주도사논고, (서울:세기문화사, 1982), 349-340쪽.

121) 정진각, 앞 책, 97쪽.

입장에서 해석하려는 사람들때문에 지나간 상황이 왜곡되게 전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았다.’¹²²⁾고 제주도 신축교난사 발간의 의의를 강조하고 있으며 당시 천주교 제주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현인종회장은 ‘이런 천주교회사가 이미 오래전에 발간되었어야 좋았을것이었고 그러므로써 기록의 완전한 보존이 가능했을 것이며 또한 교회 외적인 입장에서 교회를 왜곡하지도 못했을것이라고 미루어 볼때 이제야 뒤늦게 이 책이 발간 되었음을 아쉽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다행한 일로 생각한다’¹²³⁾ 고 전제하면서 당시 일어났던 교도들의 잘못을 인정지 않고 있다. 이에대해 ‘제주도 신축년 교난사’ 발간 기념회에 도내향토 사학자들도 참석하여 이책의 내용을 볼 수 있었는데 그 중 한 사람인 홍순만은 저자인 김유희와 책의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시간을 약속하고 향토사학자들과 함께 만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안 제주교구청에서 홍순만에게 자신들이 향토사학자들과 김유희와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계의하여 홍순만은 김유희와의 약속을 취소하고 제주교구청의 소식을 기다렸으나 제주교구청은 출판기념회를 마치고 곧바로 김유희씨를 제주도를 떠나도록 조치하였다고 홍순만은 주장한다. 그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필자에게 “짐작컨데 학자인 김유희씨가 독자적으로 ‘제주도 신축년 교난사’를 그렇게 저술하지는 않았다고 본다. 제주교구청의 의뢰에 의하여 그들의 주장을 대변하는 신축년 민란을 천주교측에 유리하게 미화하는 측면으로 저술하였다고 본다.”고 그날을 회상하였으며 오늘의 濟州 교구청의 입장을 어떻게 보느냐는 물음에 “오늘날의 제주교구청의 신축년 민란의 견해는 1980년 김유희씨에 의하여 저술된 ‘신축년 교난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고 이야기 한다.¹²⁴⁾

122) 김유희, 앞 책, 10쪽.

123) 김유희, 앞 책, 12쪽.

그러나 도민의 입장에서는 이재수를 비롯한 세 장두가 당시 삼읍민을 괴롭히던 불의의 재악과 싸워서 이를 패배시켜 민중의 고통을 제거해준 의인이었으며, 外勢의 內政干涉을 排斥하고 국가자주를 열망하는 '애국민의 승리'라고 주장하고 있어 민란당시의 감정이 이제까지 팽팽히 맞서오고 있음을 들어내고 있다.

이같은 평행선상의 감정대립은 민란이래로 제주도 교회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본다.

제주도의 개신교의 역사는 1908년 이기풍목사가 입도하면서 시작되었다. 제주도에 들어온 이기풍목사는 한 私家에서 10여명을 모아 기도회를 시작하니 이것이 제주도 교회의 시작인 성내교회이다. 그는 성내교회를 비롯 삼양, 금성, 조천 등 교회를 설립하면서 예수교를 서양교라고 적개심을 품고 있는 주민들에게 온갖 반대와 流血의 핍박을 받았다.¹²⁴⁾

이와 같이 시작된 개신교의 제주도 선교는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선교하며 성장하여 수난 속에서도 제주도교회는 김창규와 김영국 목사, 조봉호 전도사 등이 주축이되어 3·1만세 운동의 중심역할을 담당하였다. 일제 강점기에는 신사참배를 강요당하는가 하면, 일제는 예배형식과 행사에까지 탄압을 하였다. 1943년에 일제는 조선 예수교 장로회를 해체하고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으로 개칭하였다. 이에 제주도에서도 제주노회가 해체되고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 제주교구로 개편되었다. 이러한 제주도 교회는 민족해방을 맞이 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듯 하였으나, 제주 4·3사건과 6·25동란으로 교회는 다시 受難을 당하였다. 그러나 6·25동란으로 제주도는 수난만 당한 것이 아니었다. 피난민 중에는 상당 수가 기독교인이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 가운데서도 전도에 열심을

124) 홍순만-제주도 향토사학자, 현재 한라일보 논설위원.

125) 강문호, 문태선, 제주선교70년사, (서울: 크리스찬신문사, 1978), 41-42쪽.

다한 결과 이 시기에 감리교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

복음의 불모지에서 선교를 시작한 개신교는 선교의 어려움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래 도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타 지역, 특히 인근 부산지역과 전라남도에 비해 교세가 상당히 약하다. 그 이유는 地政學的 조건으로 인한 폐쇄성과 배타성, 강한 巫俗신앙의 지배에서 기인된다고 보는 見解가 일반적이거나 전술한 바와 같이 1901년 제주도 전역에서 일어난 신축년 민란을 통하여 제주도민에게 정복자, 침략자로 비쳐진 외래종교의 부정적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도표1> 제주도 교세현황

1991년12월 말 현재

	교 회 수	교 역 자 수	교 인 수
제 주 시	73	148	14,376
서 귀 포 시	44	66	8,115
북 계 주 군	50	50	3,907
남 계 주 군	35	35	3,712
계	202	299	30,110

<도표2>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1991년 12월31일 현재

노 회	교회수	교역자수	교인수
전 서	85	109	5,862
전 남	115	232	16,867
광 주	134	257	16,042
순 천	199	269	10,175
순 서	111	122	7,209
여 수	109	171	11,359
목 포	183	194	9,148
경 북	98	204	11,043
진 주	163	173	6,000
경 남	113	175	8,512
부 산	63	191	10,545
부 산 동	75	224	11,724
울 산	70	142	6,586
계 주	78	129	7,214

<도표3> 기독교대한성결교회 1991년 12월 31일 현재

지방회명	교회수	교역자수	교인수
전 남	93	114	17,424
광 주	59	65	11,993
부 산	69	74	22,034
경 남	66	70	16,176
계 주	11	12	2,230

<도표4> 한국기독교장로회 1991년 12월31일 현재

노 회	교 회 수	교역자수	교 인 수
전 남	130	146	31,240
광 주	102	125	25,871
경 남	40	53	10,871
계 주	17	33	3,989

<도표5>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1991년 12월 31일 현재

	교 회 수	교역자수	교 인 수
부 산	228	676	179,204
대 구	253	735	185,856
광 주	56	156	44,464
전 남	518	252	67,890
경 남	287	370	57,178
계 주	15	15	2,033

<도표6> 천주교

1991년 12월 31일 현재

	부 산	광 주	전 주	계 주
교 인 수	283,190	201,880	116,455	32,501
성 당 수	106	183	230	29

vi. 결 론

濟州道 辛丑年 民亂은 제주도에 본격적으로 天主教가 典例될 즈음에 政治, 經濟, 社會, 文化的인 狀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난 한말 최대의 教案으로 오늘날 날까지도 도민의 情緒를 자극하는 제주도 교회에 부정적인 歷史的 背景을 제공하고 있다.

민란 이후 천주교는 제주도에 神聖女學校를 세우는 등 教育事業으로 큰 공을 세웠으며, 聖 이시돌 센터는 제주도에 牧畜業의 기반을 세우기도 했다. 이러한 점에서 敎會와 도민간의 和合점을 찾으려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쉽게 찾을 수 있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참된 憐憫과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천주교가 제주도에 傳敎를 시작하면서 제주도에 대한 충분한 理解가 없이 既存의 文化를 破壞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서 도민과 마찰이 생김과 동시에 외래 종교인 천주교가 傳敎過程에서 생긴 分爭을 종교적 次元에서 수습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武力에 의해 해결함으로써 해서 천주교에 대한 도민의 情緒를 자극하게 되었고, 교회는 民衆의 편에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封建的인 支配體制와 결합으로 민중들은 교회를 鬭爭의 대상으로 삼게되었으며, 또 교도들의 불법적인 行動은 도민들의 원한이 교회로 모아지게 만들었다.

한편 전교를 시작한지 2, 3년 만에 천여명의 신자를내는 빠른 교세의 확대는 제주 인구의 1/20에 해당 될 정도로 급성장 하였지만, 오히려 민란이 일어나 6, 7백여명의 천주교 신자의 피해를 가져왔고 해방 이후 제주도의 신자 수는 겨우 100여명에 지나지 않았다. 126)

126) 제주도문화공보담당관실, 앞 책, 635쪽.

민란의 영향으로 1907년 朝鮮예수교長老會 독노회가 배출한 牧師 7인 중 제주도 宣敎師로 派送된 李基豊목사가 1908년 제주도에 들어와 선교활동을 시작한 이래 제주도 교회의 역사는 험난한 길의 연속이었다.

이기풍목사를 중심으로한 선교활동은 서양종교에 대한 否定的 認識으로 처음부터 도민들의 맹렬한 反對와 迫害를 받았다.

이와 같이 제주도는 아직까지 辛丑年 民亂의 감정대립은 水平線을 그리고 있으며, 교회측이 '暴徒'라고 주장하는 이 '폭도의 자손'들은 아직도 祖上이 '義人'이라는 信念에는 변함이 없다. 아직도 이 섬은 '폭도=의인'의 등식을 수용하기에는 너무 좁다.¹²⁷⁾ 진정한 용서하는 화해가 이루어질 때 황사평의 700여 犧牲者의 주검이 의미가 있으며, 濟州 宣敎의 새로운 역사도 시작될 것이다.

127) 오성찬, 이재수난의 제주도민은 폭도가 아니었습니다, 1983년 마당 4월호, 44쪽.

參 考 文 獻

- 강문호·문태선, 제주선교 70년사, (서울:크리스찬신문사, 1978).
- 강용삼 외, 대하실록 제주100년, (서울:태광출판사, 1984).
- 기독교대연감편찬위원회, 기독교대연감, (서울:기독교문사, 1993).
- 김봉옥, 제주통사, (제주:도서출판 제주문화, 1987).
- 김양선, 한국 기독교사 연구, (서울:기독교문화사, 1983).
- 김양식, '1901년의 제주도 민란의 재 검토', 제주도 연구제6집, 1989.
- 김우희, 제주도 신축년 교난사, (제주:태화출판사, 1980).
- 한국 천주교회사, (서울:카톨릭출판사, 1962).
- 김용태, 제주도사론, (서울:세기문화사, 1982).
- 김윤식, 속음청사, 한국사료총서 제11권, 국사편찬위원회, 1960.
- 김태능, 제주도사논고, (서울:세기문화사, 1982).
- 노길명, 한국교회와 카톨릭시즘, (경북:분도출판사, 1983).
- 박광성, '1901년 제주도 민란의 원인에 대하여', 인천교대 논문집 제2집, 1968.
- 박찬승, 19세기 전반 제주지방 사회 경제 구조와 그 변동, (서울:교학사, 1986).
- 뿌리깊은 나무, 한국의 발견, (서울:브레테니커, 1983).
- 서울대 제주 학우회편, 제주 신당의 내용 및 현황조사 보고서, 1973.
- 양정규, 탐라의 여명, (서울:광명출판사, 1970).
- 오성찬, '이재수 난의 제주도민은 폭도가 아니었습니다', 1983년 마당4월호.
- 유홍렬, 고종 치하의 서학수난의 연구, (서울:울유문화사, 1963).

- 한국 천주교회사, (서울:카톨릭출판사, 1962).
- 이기석, '1901년 제주도 민란의 성격과 구조' 서의필 회갑기념 논문집 한남
대, 1988.
- 이사례, 순교보, (서울:기독교교문사, 1991).
- 이원호, '한말 제주도 통어문제 일고', 역사교육 제10집, 1975.
- 이정훈, '제주 신축 성교난에 관한 연구', 제주도 연구 제5집, 1988.
- 이호운, 한국 초기교회사,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70).
- 정진각, '1901년 제주도 민란에 관한 일고', 한국학 논문집 제3집, 한양
대, 1983.
- 제주도 문화공보 담당관실, 제주도지, (제주:경신인쇄사, 1982).
- 제주도 문화 공보실, 제주도 30년사, (제주:경신인쇄사, 1985).
- 제주도사 연구회, 제주도사 연구 창간호, (제주:경신인쇄사, 1991).
- 제주신문, 1962년 6월 10일.
- 최선홍, '제주도 학살사건과 본당 연혁', 카톨릭연구 1935년 9, 10월호 합병
호.
- 현기영, 변방에 우짚는 새, (서울:창작과 비평사, 1983).
- 황성신문, 광무 4년 12월12일; 광무 5년 3월18일- 9월 4일;
광무 6년 6월28일; 광무 7년 11월20일; 광무 8년 6월 1일.
- CH. Dallet, 한국 천주교회사, 안응렬·최석우역, (경북:분도출판사, 1980).
- Jott. Mark, 카톨릭 교회사, 김창수역, (서울:카톨릭출판사, 1959).
- Jseph. Houvie, 카톨릭 사상사, (서울:카톨릭출판사, 1965).
- K. E. Bolding, 제국주의의 계 관점, 한주환·김장호공역.

Stephen, Neill, *Coinalism and Christian Missions*, (N. Y. 1969).

廣瀬和子, *국제법학의재구성*, 동경대학 출판회.

ABSTRACT

The Insurrection of The Che-ju Insurrection in the year of Shin-Chuk (1901) & The Churches

Kug Hwan Kim

Department of Historical Theology

The Graduate School of Theology

Mokwon University

This articles illuminates the Che-ju insurrection in the year of Shin-Chuk affected on formation of the Churches in Che-ju island, basd on the nature and the result of the insurrection broken out in Che-ju island in 1901.

It is founded on <Sok Eum Chung Sa> of kim Yun-sik and news story of Hwang-Seong Newspaper in those days.

The Insurrection made many victims ranking next to the Insurrection of peasantry in 1894 in the end of Cho-Sun Beacuase Che-ju island people insurrected against the tyranny of local governors, the customs inspector dispatched by the Central governmant with the duty of tax assessment and control of local governors, and the illegal acts of Catholic It spread from the army of Cheong-Eui to all over

Che-ju island. It came to involve international problem out of local problems for France dispatched a warship with a pretense of protecting French priests by the conflicts between Che-ju island people and the Catholic.

In chapter 1, this article explains the history of research about the Insurrection, the local organization of Che-ju island, and the structure of tax assessment in those days.

In Chapter 2, It explains the Circumstances of Korea in those days that the Catholic Church came into Che-ju island, and grasps the confused situation of Che-ju island by investigating insurrections happened in Che-ju island before 1901.

In chapter 3, we considerate the cause of the Insurrection based on political, economic, social, cultural situation of Che-ju island in thdse days. We also study its reration with the Catholic Churches.

In chapter 4, we think over Che-ju island people's reaction against Catholic Churches through the process of the Insurrection. We also considerate reasons having difficulty in beginning protestant's mission by the influences of Catholic arrogance in the process of the insurrection.

In Chapter 5. we considerate the direction of Mission in Che-ju island forward, the insurrection relating with Catholic Churches, through the affection of the Insurrection on the formation of Che-ju

island's Churches, through the nature of Catholic Churches in the end of Cho-Sun, and the role of Catholic Churches in insurrection, through the affection of Catholic Churches on Che-ju island people's emotion.

In the end of Cho-sun, Catholic churches come into Che-ju island were Objects of rejection without welcome to Che-ju island Particularly, through the Insurrection in 1901. Catholic Churches were more remote to Che-ju island people's emotion At this time, in 1908, mission of protestant Churches was begun, and pastor Lee Kee-Pung led the van of it.

The churches contributed to Cho-ju island after the Colonial period and the Liberation a lot, but by the influence of the Insurrection in 1901, they were yet rejected as alien religion and aggressive force.

In December, 1991, the population of Che-ju island is about 530,000, and christian population of them is about 30,000. It is only for 0.7% of the population of Che-ju island people. so we can gues Che-ju island people's rejection of the churches through it. Many people consider this situation of the Churches in Che-ju island as particular circumstances, exclusive temperances and strong native religionship. But we must not overlook the influences that the Insurrection in 1901 wounded Che-ju island people.

So the Churches in Che-ju island must make way for mission by

solving conflicts with Che-ju island people and reconciling with them.